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몰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대표전화: (703)281-9660 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제 691396호

Friday, October 3 2025 A

민주당에 경고 "'공무원 대량 해고' 협상 전술 아니다"

트럼프 "민주당이 내게 기회 줬다" "민주당 예산은 정치적 사기" 백악관최후통첩 "민주당이자초"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 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에 맞 춰 공무원을 대량 해고하겠다고 한 것 이 실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셧 다운 이틀째인 2일 폭스뉴스 인터뷰 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조직·프로 그램 삭감을 예고한 것이 '진짜인지 협 상 전술인지'를 묻자 "이는 매우 진짜 (real)다"라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들이 백악관과 대 통령을 이런 상황에 오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정부를 셧 다운시키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면, 오 늘 백악관에서 이런 논의를 하지 않았 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레빗 대변인은 또 "이는 불행한 결 과이며, 대통령과 러셀 보트 백악관 예 산관리국(OMB) 국장은 오늘 늦은 시



연방정부 셧다운 1일째인 10월 1일 연방의회 의사당 횡단보도에 적색신호가 켜졌다.

간에 회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도 성향 민주당 상원의원들 을 향해 "그들은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단지 실행할 용기가 부족할 뿐"이라며 "하지만 그들은 정부가 계 속 운영되도록 이 '클린 임시예산안' 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그들이 지난 3월에, 그리고 과거 13차례나 찬성했 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해당 인터뷰 직후 백 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는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규모에 대해 "수천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 도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현지 시간) 민주당이 연방정부 셧다

운 사태 해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민 주당이 중시하는 정부 프로그램부터 중단하겠다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 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 에서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 (OMB) 국장을 만날 예정이라며 "민 주당이 만든 수많은 기관 가운데 상당 수가 정치적 사기라고 할 수 있는 조직 들"이라며 "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삭 감할지, 또 그 조치가 일시적일지 영구 적일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급진 좌파 민주당이 나 에게 이런 전례 없는 기회를 줬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그들이 멍청한 사 람들은 아니니, 어쩌면 조용히 신속하 게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의회가 새 회계연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1일 0시1분부터 연 방정부 셧다운에 돌입했다.

2일로 이틀째에 접어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민주당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보트 국장은 전날 민주당 상 하원 지 도자들의 지역구가 포함된 뉴욕주의 인프라 사업 예산 약 180억 달러 집행 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또 민주당 성향 16개 주의 친환경·재 생에너지 사업 자금 약80억 달러를 삭 감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셧다운이 발생하면 정부는 필 수직을 제외한 공무원을 무급 휴직 처 리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는 대규모 해고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압 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편 행정부 내 온건파로 통하는 스 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셧다운이 미국 경제 성장 세를 둔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를 셧다운하고 국내총생 산(GDP)을 떨어뜨리는 것은 대화 방 식이 아니다"라며 "GDP와 성장, 그리 고 미국 노동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상원의 임시 예산안 재표결은 오늘 (3일) 열릴 예정이다.

이재명 연이어 친중 발언, 법원은 '혐중시위 제한 통보'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혐중 시위'에 대해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백해무익한 자해 행위를 완전히 추방 해야한다"고 밝히는 등 친중적인 발언 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2일 수석보좌관회의에 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거론하며 "내수 활성화와 경제 회복에 많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그 런데 문제는 최근 특정 국가・국민을 겨 냥한말도안되는허무맹랑한괴담·혐 오 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인 종차별적인 집회들도 계속된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역지사지 해보자. (일 본 혐한 시위) 그때 우리가 가졌던 그 느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느 끼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관광객 1000만 명이 더 들어오 면 엄청난 수출 효과를 내는 것"이라

며 "고마워하고 환영해도 부족할 판 에 혐오 발언하고 증오하고 욕설하고 행패 부리고 이래서야 되겠느냐"고 말 했다.

또한 "국격을 훼손하는 행위를 결코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주한중국대사관은이례적으로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동조

>> 2면 '친중 발언' 으로 이어집니다

폭스 "올해 미국 인구 감소 가능성"

폭스 뉴스가 올해 연말 기준으로 이민 과 출산 감소로 역사상 최초로 미국 인 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폭스뉴스가 보수 씽크탱크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드를 인용해 올 연말 미국 인구가 52만5천명 감소에서 11만5천명 증가 사이의 변화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방센서스국 발표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미국 내 이민자가 5330만명으로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퓨 리서 치 센터 조사는 이후 강력한 이민단속 과 추방 정책으로 6월말 기준 5190만명

으로 감소했다고 추정했다.

이민자 감소로 미국 인구 중 이민자 비율은 1월 15.8%에서 15.4%로 감소했 다. 미국 전체 근로인구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에서 19%로 줄었 다. 현재 미국 이민자의 22%가 멕시코 출신이며 인도(6%), 중국(6%), 필리핀 (4%), 쿠바(3%), 구소련지역(3%), 한국 (3%) 등의 순이다.

1965년부터 2025년 사이 한국에서 온 이민자는 모두 210만명이다. 현재 미국 인구는 3억 4114만명이다.

김옥채 기자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어렵고 복잡한 문제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언제나 당신 곁에서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나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GUIDED BY FAITH, ROOTED IN INTEGRITY, SERVING WITH PROFESSIONALISM.





비지니스 / 부동산

- 비지니스 설립 / 매매 • 비지니스 매니지먼트 / 라이센스 / 퍼밋
- 리스 검토 / 협상 / 작성
- 투자 / 파트너쉽 계약
- 주택 / 상업 건물 매매
- 부동산 명의 변경

민사 / 형사 소송 • 민사 소송 / 방어

- (계약 분쟁, 임대차 분쟁, 교통사고 등) • 형사 소송 방어 / 교통위반 / DUI / DWI
- 법원 출두 명령 대응

이민법 / 시민권

- 결혼이민 / 약혼비자 / 가족이민
- 취업이민 (비숙련공 / 숙련공 / 학사 / 석사 / 박사) • 취업비자 / 투자비자 (E2 한국 / 캐나다)
- 형사법 위반 시민권 신청
- 이민 전반 상담 / 이민국 인터뷰

상속 계획

- 리빙 트러스트 / 유언장
- 위임장 / Medical Directive / Life Estate Deed
- Transfer on Death Deed

기타 법률 업무

- 개인 파산신청 / 법원 트러스티 협상
- 교통사고 세틀먼트

(상담약속: 전화 / 텍스트

703-621-7117

info@logoslawgroup.com www.logoslawgroup.com VA 오피스: 7617 Little River Turnpike #210, Annandale, VA 22003 MD 오피스: 3448 Ellicott Center Dr. #103, Ellicott City, MD 21043

△ ○ 종합

한인 1만2천명 한국 국적 포기

국적포기자 66%가 미주 한인 4년간 한인 215명 미국서 추방

최근 5년간 미주 한인 1만2231명이 한 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유지 하거나 새로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 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18~40세 중 1 만8434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 가운데 미주 한인이 66%를 차지해 가 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국적 포기 사유를 보면, 국적 상실이 65.9%로 가장 많았다. 이는 유학 등 해 외 장기 거주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다. 이 같은 방 법으로 미국 국적 취득자가 7510명으 로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주 요국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

연방정부 폐쇄와 무관

2024 납부기한 지켜야

2024년 연방 세금 신고 기한을 연장한

납세자들은 10월15일 마감일을 연방

정부 셧다운과 관계없이 준수해야 한

다고 연방 국세청(IRS)가 2일 밝혔다.

납세자 1900만 여명이 오는 15일까

지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추산하

고 있는 IRS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연방 정부 폐쇄로 또 한번의 유예를 기

대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



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이 34.1%를 차 지했다. 국적 이탈자 역시 미국이 4721 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최근 4년간 한국인 215명 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강제 추방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외교부가 영사민원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추방자는 실제 추방자 수 의 7% 수준에 머문 15명에 불과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 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2021 년이 7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22 년 27명, 2023년 61명, 2024년 56명이

10월15일 세금신고…더 이상 연장은 없다

연방 정부 셧다운과 맞물려 운영을

위한 '비상 계획'을 발표한 IRS는 폐쇄

후 첫 5일 동안은 모든 직원이 전부 근

무하고, 그 이후에도 필수 기능은 중

IRS 앤서니 버크 대변인은 현재 국

세청 예산은 별도의 자금 지원 패키지

의 일부이며, 셧다운이 장기화되더라

이어 그는 "연방 세법에 따른 신고

및 납부 요건은 세출 예산 집행 중단에

고 납부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 없이 계속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차이에 대해 외교부는 "한국 인의 체포·구금시 ICE가 공관에 자동 통보할 의무가 없고, 재외국민이 영사 조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통보되기 때문에 실제 추방자 수와 차이가 발생 할수 있다고 해명했다.

최근 5년간 해외 영주권자 등 국외 이주자 2813명이 한국 군대에 자원입 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미 국 국적자가 5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 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 는 지난달 15일 학사 장교 사관후보생 으로 해군에 입대했다.

이어서 중국(476명), 베트남(260명), 일본(220명), 캐나다(155명), 인도네시 아(154명) 등이 뒤를 이었다.

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단기적인 안정성에도 불구하

고, IRS가 장기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인 면도 지적되고 있는데, 올해

초 정부효율부(DOGE)의 계획으로

인해 현재 대규모 인력 감축에 직면해

이날 연방 재무부 감찰관은 2025년

세금 신고는 몇 가지 주요 개선 사항으

로 성공적으로 진행됐지만, 2026년 업

무수행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

있는 상태다.

다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

김성한 기자

워싱턴 지역 단신

셧다운에도 이민단속 업무 변화 없을 듯

연방정부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이 민단속 업무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지난 7월 제정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 해 이미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ICE가 소속된 연방국토안보부는 2023년 셧다운 위기 때 직원 88%를 유지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 에는 95%로 상향 조정했다.

관세 정책 실무 기관인 미국무역 대표부(USTR)는 대체로 필수적이 지 않은 기관으로 분류됐지만 셧다 운과 무관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무 역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워싱턴 지역 아파트 렌트비 보합세

워싱턴지역 아파트 렌트비가 수년 2389달러, 2베드룸은 2865달러로 간의 상승세를 뒤를 하고 보합세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타이 슨스 지역의 1베드룸 중간 렌트비는 가하는 등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전년동월 대비 0.7% 감소했다. 하지 만 애난데일, 페어옥스, 페어팩스, 헌던, 레스턴, 센터빌 등은 1-3% 증

크리스마스 우체국 소포 17일 데드라인

우정국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선물 소포(그라운드 어디벤티지 서비스) 와 카드(퍼스트 클래스) 등을 받을 수 있으려면 늦어도 12월17일까지 는 발송해야 한다고 전했다.

프라이어티 메일은 12월18일, 프 라이어티 메일 익스프레스는 12월 20일이 기한이다.

한국 등 아시아 지역의 경우 퍼스 트 클래스 팩키지 인터내셔널 서비 스와 프라이어티 메일 인터내셔널 서비스는 12월9일, 프라이어티 메일 익스프레스 인터내셔널 서비스는 12월16일이다. 페댁스와 UPS는 서 비스 종류에 따라 12월11일부터 24 일까지 매우 다양한다.

VA 주지사 선거 오차범위 내 접전 조사도 나와

A2 인사이트의 최근 여론조사에 의 하면 오는 11월 버지니아 주지사 선 거에서 윈섬 얼-시어즈(공화) 후보 가 45%를 기록해, 48%인 에비게일 스팬베르거(민주)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뒤쫓고 있었다.

지난 2021년 주지사 선거에서 글 렌 영킨(공화) 주지사는 50.58%를 득표해 테리 맥컬리프(민주) 후보 (48.64%)와 접전을 벌였다.

워싱턴지역 공항 셧다운 영향 아직은 미미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워싱턴 지역 공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 이나오고있다.

현재 덜레스, 레이건, BWI 공항 등은 아직 지연 도착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연방교통부 공무원 1만1천여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통보안국(TSA) 직원들과 1만 3294명의 관제사들은 필수업무로 지정돼 근무를 계속하고 있지만, 임 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사기 저하 가능성이 높다. 김옥채 기자

1면 '친중 발언' 에서 이어집니다

중국대사관은 "한국의 일부 정치인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일부 극우 단체 가 중국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서울 명 동, 대림동 등지에서 반중 시위를 수시 로 벌이고 있다"며 "중국과 한국 양측 은 모두 이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3일 예정된 반중 시위를

워싱턴 날씨 (°F)

10월 3일(금)73-50

이 재한 중국인의 신변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철저히 보장할 것을 엄중히 요 구하다"고 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보수단체 자유 대학이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판결 선고 때까지 통고 집행을 멈춰달라'며 함께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 렸다.

앞서 자유대학은 지난달 17일 서울경 불순한 의노"라고 비판한 뒤 "한국 즉 잘정에 개전설 십회 신고들 했고, 같은 을 지석했다

7일(화) 82-65

8일(수) 73-53

9일(목) 63-47

달 26일 경찰은 '집단적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모욕·명예훼손 및 특정 인종·국적 등에 대한 혐오성 표현을 금 지한다'는 내용의 제한통고를 했다.

이에 자유대학은 경찰이 표현의 자유 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행정법원에 소 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청이 자유대학의 집회 신고서가 접수된 뒤 법령에 정해 진 시간 이내에 제한 통고하지 않은 점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mark>사</mark> 703-489-6926



알링턴 콘도 **S2.100** 차고 1, 방 1, 화 1

RENT (매나세스 파크시티 **S3.000** 차고 2, 방 3, 화 2.2

SALE (목점) 알렉산드리아 3층 타운홈 차고 2, 방 3, 화 3½

서 라 젬과 함께 하는 10월 건강 혁신 - 척추와 혈액 순환을 위한 특별한 선택! **CERAGEM**



● 대한민국 식약처, 미국 FDA, 유럽 CE로 부터 인증받은 의료기기 기술력

4일(토) 79-51

6일(월) 81-59 🚓

- 척추 길이, 굴곡도, 하중 인식으로 사용자 체형측정 기능 (특허)
- 내부 발열 도자가 사용자별 척추라인을 따라 업 다운 밀착 마사지 효과 제공 (특허)
- 추간판(디스크) 탈출증 치료, 퇴행성 협착증 치료 도움 • 척추 부위에 집중적으로 온열(최고 149°F)과 압박 자극을 제공하여 척추 교정에 도움
- 척추 마디마디를 시원하게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도와 근육통 완화에 효능, 효과
- 복부 온열 LED 도자로 생리통 치료에 도움(V7 모델)

- 척추 굴곡도를 닮은 프리미엄 SL 프레임
- 원하는 밀착감 경험 3단계 어깨 높이 조절
- 마사지 효과를 놀이는 릴렉스 온열 케어 (최고 113°F)
- 편리함과 편안함을 더한 145°F 전동 리클라이닝
- 척추라인을 따라 섬세한 마사지
- 최대 140° 온열과 섬세한 진동 복부 온열 진동 도자
- 휴식의 몰입감을 높이는 블루투스 스피커
- 지압, 주무름, 두드림, 복합, 에어백 골반, 허벅지 마사지



중앙일보 2025년 10월 3일 금요일

워싱턴 2.20클럽 2025년 대통령상 수상

재외동포청, 포상자 공개

'2025년 세계한인의 날 기념' 대한민국 정부포상 명단이 2일 공개됐다. 위싱턴 지역에서는 2.20클럽이 대통령상을 수 상했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이 이날 공 개한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유공 정부 포상자' 명단은 단체포함 총91명이다.

2.20클럽 문 숙 회장은 "회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받은 값진 선물이다.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뜻으로 알고 계속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750만 재외동포들이 한 민족의 긍지를 갖고 살고, 차세대들이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 적과 취지를 두고 2007년부터 매해 10 월5일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 는 동시에 재외 유공자들에게 포상을 하고 있다.

그 동안 워싱턴 지역에서는 어떤 종 체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와 가족을



후원 봉사를 한 후 단체와 학생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류의 상이든 간에 개인과 단체를 포함 해 2-4명 정도가 수상자로 선정되어 왔는데, 올해는 단체 1개지만 제대로 된 심사라는 평이 한인사회 지배적이

2007년 설립된 2.20클럽은 비영리단

위해 봉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현 재 애난데일 테라스, 베일리스 업퍼, 브 래덕, 브렌 마 파크, 포리스트데일, 하 이블라 벨리, 런던 타운, 린브룩, 파인 스프링, 우드번 등 초등학교와 포우중 학교에 급식을 후원하고 있다.

김성한 기자

11월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대량 해고 대비한 일자리 알선 작업

워싱턴지역 정부들이 지난 1일 셧다운

으로 강제 무급휴직 처분을 받은 연방

정부 공무원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워싱턴지역정부연합회(COG)는 '탤 런트 캐피털 이니시어티브'를 통해 실

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자리 알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장기 실직

에 대비해 각종 직업훈련과 경력유지

COG는 버지니아, 메릴랜드, 그리고

워싱턴DC의 24개 각급 정부가 연합한

탤런트 캐피털 이니시어티브의 웹사

이트(https://talentcapital.ai/)는소

를 위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비영리정부조직이다.

전개하고 있다.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를 한 달여 앞두 고실시된 설문조사에서 민주당 후보인 아비게일 스팬버거가 공화당 소속 윈 섬 얼-시어스 부주지사에 지지율에서

에머스 칼리지가 실시해 1일 공개한 설문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52%가 11월 선거에서 스팬버거, 42%는 얼-시 답했다.

스팬버거의 지지율은 지난 1월과 비 교해 10%포인트 상승했고, 얼-시어스 지지율은 1%포인트 올랐다. 유권자 중 5% 미만은 아직 지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스팬버거는 지난 1월 이 후 무소속, 남성, 젊은층으로부터 지지 율이 높아가고 있는 데 반해 얼-시어 스는 뚜렷한 지지층 확보가 보이지 않 고 있어 추세에 대한 변동을 찾을 수가 김성한 기자

프트웨어 회사 '빌드위든'이 운영하며 인공지능(AI)을 통해 직업을 직접적

으로 알선하고, 직업훈련, 경력관리 등

탤런트 캐피털 이니시어티브는 도널

드 트럼프 행정부가 올초 1년래 연방공

무원 30만명을 해고할 방침을 밝히면

서 설립이 추진됐다. 버지니아는 별도

의 웹사이트(VirginiaHasJobs.com)

크라크 메르서 COG 상임이사는

"워싱턴지역 경제가 연방정부 공무원

고용시장과 밀접히 관련된 만큼, 대규

모 해고로 인한 충격파를 얼마나 잘

흡수하느냐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

김윤미 기자

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를 운영하고 있다.

스팬버거, 에머슨대 설문조사서 얼-시어스에 10%p 앞서

지역정부, 셧다운 피해 공무원 돕기 나서

10%p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스에게 지지표를 던질 것이라고 응

한미국가조찬기도회 장소 변경

한미국가조찬기도회가 기존에 예고했 던 올해 행사 장소를 긴급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도회 측은 "10월1일 부로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함에 따라, 국회로부터 행사 취소 또는 연기 통보를 받게돼 어 쩔수없이 기도회 장소를 변경하게 되 었다"고 전했다.

기도회는 애초 연방의회 의사당 건 물 내에서 예정돼 있었다. 새로운 기도 회 장소는 버지니아 비엔나에 위치한 올네이션스 교회(8526 Amanda Place, Vienna, VA)이며, 기도회 시간은 오는

7일(화) 오전 8시로 기존과 동일하다. 기도회 측은 "갑작스러운 장소 변경

으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 린다"며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새로 운 장소에서 미국과 한국을 위한 기도 의 자리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도회 장소 변경으로 인해 버지니 아와 메릴랜드에서 운행 예정이었던 셔 틀버스 서비스는 취소됐으나, 새 장소 에서는 RSVP가 없어도 누구나 참석할 수있다.

▷문의: 703.844.0355, JSU2000@ gmail.com 김윤미 기자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목회와 교회 포럼' 개최

설립50주년기념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설립 50주 년을 맞아 구성된 희년 기념위원회(위 원장 이병완 목사)는 지난 29일, 워싱 턴헤리티지신학교(이사장 문선희)에 서 '목회와 교회 포럼'을 개최했다.

이병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50주 년 기념위원회는 세상 속에서 목회와 교회의 본질, 목적을 다시 세우고, 다 가올 시대에 교회와 선교가 회복되기 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포럼을 준 비했다"며 "특히 미자립교회와 선교 를 후원하는 일에 함께하며, 이를 통 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란다"

포럼은 김범수 목사(50주년 기념위 원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세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열렸다.

김의원 박사(전 총신대학교 총장) 는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한 교회 회

복'을, 최고센 박사(NYSKC 예배회 복운동 대표회장)는 '예배 회복'을, 장 요나 선교사(비라카미 선교회 대표) 는 '선교 회복'을 주제로 각각 강연을 펼쳤다.

이날 특별찬양은 쉐퍼드합창단(지 휘 박요셉 목사)이 맡았으며, 최윤환 목사가 개회기도, 김택용 목사·정인량 목사 이석해 목사, 박정일 인도 선교사 가 강연 기도를 담당했다. 한 훈 목사 는 사진과 홍보를 맡아 봉사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50주년 기념위원 회는 50개 교회와 선교지를 후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날 참석한 지 역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에게 후원금 을 전달했다"면서 "향후 참여하지 못 한 교회와 선교지에도 총 5만 달러의 후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의: 301-537-8522 김범수 목사

김윤미 기자



1-866-915-6664



4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www.toptravelusa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안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기물파손 ■ 마약

■ 절도 / 횡령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영사법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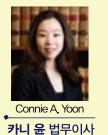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데이빗 막스 변호사 David L. Marks, ESQ

• 20년간의 법정경력 SUPER LAWYERS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Rated AV-PREEMINENT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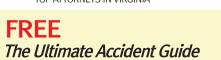




www.davidmarkslaw.com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우리 아들같은 학폭 피해자 더는 없어야죠"

극단 선택 이현경군 부모 학폭예방페이스북개설 학교·지역사회서도 동참

학교 폭력에 괴로워하다 극단적 선택 을 한 한인 중학생 이현경(11·영어 이름 에이든)군의 사망 소식(본지 10월1일자 A-1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 군의 부모가 학교 폭력 근절 활동에 나 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황망하게 외아들을 잃은 이재석·정 혜미 부부는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컸다. 하지만 부부는 슬픔에 만 머물지 않았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이 되던 지난 1일, 부부는 '컬 럼비아 카운티 학교폭력 예방(CC NO Bullying)'이란 이름의 공개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었다. 누군가로부터 괴롭 힘을 당하는 학생 누구나 도움을 호소 할수있도록하곳이다.

이씨는 "다시는 괴롭힘으로 고통받 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학생, 학부모들과 힘쓸 것"이라며 페이스북 그룹을 만든 배경을 설명했다.

부부는 처음에는 아들이 극단적 선 택을 한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러다 최 근에야 8학년 상급생의 괴롭힘이 있었 다는 제보를 받고 학교 폭력 피해 사실 을 알게 됐다. 지금은 추가 증언을 확보 하기 위해 학부모와 재학생들에게 도 움을 요청한 상태다.

이씨는 "진상 조사를 통해 누군가를 괴롭히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



이현경 군의 가족사진.

[고펀드미 캡처]

다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 만 나와 아내는 어떤 아이도, 어떤 가 족도 우리가 겪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

고 밝혔다.

부부의 간절한 바람에 주변도 움직 이고 있다. 이 군이 다녔던 학교 측은 학부모와 교직원에게 이 군의 안타까 운소식을 알리고 3명의 상담사를 통해 학생 심리상담을 지원했다. 또 3일까지 를 이 군의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추모 의 의미로 이 군이 생전에 좋아했던 파 란색의 옷과 손목밴드 착용을 권장하 고있다.

그런가 하면 이 군 가족 돕기 참여자 도 늘고 있다. 이 군 가족을 위한 온라 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는 4일 만 에 목표 금액의 95%인 1만3000달러가

지난해 인근 어거스타에서도 13세 여 학생파비아나로사리오가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일이 있어 지역 사회에는 재발 방지 목소리가 크다.

할렘에서 의류업체 '서든 블래이즈 DTF'를 운영하는 엘리 오글스비는 이 군의 얼굴과 그가 메타버스 게임 플 랫폼 로블록스에서 개발한 게임 이름 'Spread The Love'의 문구를 인쇄한 티셔츠를 판매, 수익금 전액을 유가족 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지아주 컬럼비아 카운티 할렘중 학교 6학년이던 이군은 지난달 24일 집 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군은 심각한 학교 폭력으로 치료까지 받았던 것으 로 전해졌다. 현재 카운티 교육구와 셰 리프국이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군의 장례식은 6일 열린다.

장채원 기자

한인 ICE 시설 총격범 단독 범행에 무게

기소장에 총격범 1명으로 수정 공범들도 법정서 송씨 책임 지목

지난 7월 발생한 텍사스 이민세관단속 국(ICE) 구금 시설 총격 사건은 용의 자 송한일(32·사진)씨의 단독 범행이라 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수사 당국은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 상, 이번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17명 가 운데 실제로 ICE 구금 시설을 향해 총 격을 가한 인물은 송씨 한 명뿐이라고 보고 있다.

연방법원 텍사스 포트워스 지법은 지난달 30일 송씨와 공범 7명에 대한 예비심리를 열고, 검찰의 기소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녹색 마스크를 쓴 인물이 ICE 구금 시설을 향해 총격 을 가해 알바라도 경찰 소속 경관 1명 이 총상을 입은 것으로 적시돼 있다.

연방수사국(FBI) 소속클락위에손수 사관은 예비심리에 서 "송씨가 주모자 (ringleader)이며 직 접 총을 발사했다"

고 증언했다. 현장에 서 발견된 녹색 마스크에서는 송씨의 DNA가 검출됐고, 일부 공범들도 송 씨를 이번 사건의 '리더'로 진술한 것으 로 알려졌다.

검찰은 예비 심리에서 총상을 입은 피해 경관의 보디캠 영상도 공개했다. 영상에는 송씨가 공범들에게 "소총을 집어들어라(get to the rifles)"라고 외 치는 장면이 담겼다.

당초 기소장에는 '두 명의 총격범이 20~30발을 발사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으나, 최근 수정된 기소장에는 새 로운 증거에 따라 실제로는 총격범이 한 명뿐이었으며, 현장에서 11개의 탄

피가 발견됐다고 기록됐다.

위에손 수사관은 "초기에는 총격범 이 두 명이라고 판단했으나, 현장 검식 결과 발사 지점이 한 곳뿐이라는 사실 이 확인돼 단일 범인이라고 결론 내렸 다"고설명했다.

검찰은 또 송씨가 단체 채팅방에서 "경찰은 여러 자루의 소총 공격에는 대 비가 안 돼 있다. 여러 총기를 사용하면 물러설 것"이라고 쓴 사실도 공개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들은 법정에서 모 든 책임을 송씨에게 돌렸다. 변호인 측 은 피고들이 "ICE에 단순히 항의 차원 의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송씨는 지난 7월 4일 알바라도 프레리랜드 ICE 구금 시설 앞에서 총 을 난사한 뒤 도주했다.

사건직후송씨는텍사스주10대지 명수배자 명단에 올랐고, 전국에 수배 령이 내려졌다.

강한길 기자

삼성·SK 등한국기업들대미로비액 5년새 2배

한국 주요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늘면 서 로비 금액이 최근 5년새 2배 이상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화는 같은 기간 로비 금액 이 10배 이상 급증했고, 삼성은 지난해 862만 달러를 투입했다.

지난 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 코어가 2020~2025년 상반기 상원에 제 출된 로비 공개법(LDA) 보고서를 조 사한 결과, 조사 기간 로비를 신고한 한 국 주요 기업 법인은 52곳으로 나타났 다. 이들기업의 대미 로비 금액은 2020 년 1553만 달러에서 2021년 2161만 달

러, 2022년 2380만 달러, 2023년 2492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대선이 치러진 작년에는 전년 대비 41.8% 증가한 3532만 달러로 집계 됐다. 올해 상반기는 1966만 달러로 전 년 동기 대비 12.6% 늘었다.

지난해 100만 달러 이상을 로비에 사용했다고 보고한 한국 대기업은 삼 성(862만 달러), SK(708만 달러), 한화 (605만 달러), 현대차(478만 달러), 쿠 팡(331만 달러), LG(134만 달러), 영풍 (100만 달러) 등 7곳이다.

김수민 기자

미 타임지 차세대 100인 '케데헌' 매기 강 올라

넷플릭스 애니메이 션 '케이팝 데몬 헌 터스(케데헌)'를 연 출한 한국계 캐나다 인 매기 강(사진) 감 독이 지난달 30일 미 국 시사주간지 타임

이 선정한 '차세대 100인'에 이름을 올 렸다.

'케데헌'은 지난 6월 20일 공개된 이 후넷플릭스작품중최초로누적시청

수 3억회를 돌파하며 가장 많이 시청한 넷플릭스 콘텐트가 됐다.

타임 홈페이지에는 차세대 100인 선 정 인물에 대한 동료들의 축사가 담겼 다.

'케데헌'에 목소리 출연했던 한국계 미국인 배우 대니얼 대 김은 매기 강감 독에 대해 "마법을 만들어내는 이"라 며 "여성 수퍼히어로들을 창조하는 과 정에서 그녀 자신이 수퍼히어로가 됐 다"고적었다. 하남현 기자

현대차, EV크레딧종료에 파격 인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이 지난달 30일 부로 송료되면서 제조사늘이 판매 전 략을 재고 중인 가운데, 현대차가 선두 로 파격적인 가격 조정에 나섰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은 지난 1일 2026년식 아이오닉 5의 가격(MSRP) 을 전 모델에 걸쳐 대폭 인하한다고 밝 혔다. 이번 가격 조정으로 아이오닉 5 는 트림에 따라 최소 7600달러에서 최 대 9800달러까지 낮아졌다.

우선 아이오닉5 SE RWD스탠다드 략적 조치로 풀이되다. 레인지 모델은 기존 4만2600달러에서 3만5000달러로 7600달러 인하, SEL AWD 모델은 5만3100달러에서 4만 3300달러로 9800달러 낮아졌다.

플래그십 모델인 리미티드 AWD 역 시 5만8200달러에서 4만8975달러로 9225달러 저렴해졌다. 이는 전기차 크 레딧이 사라지면서 변화하는 소비자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

Care

현대차는 이번 결정은 국내 생산 물 량 확대를 지원하는 동시에, 전기차 경 쟁 속에서 아이오닉 브랜드가 선도적 입지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강 조했다. 한편 아이오닉 5는 출시 이후 '세계 올해의 차', '최우수 안전차' 등 다 수의 국제적인 자동차 상을 수상하며 성능과 디자인, 혁신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우훈식 기자

현대차 아이오닉 5 모델별 가격 인하표

모델	모터	MSRP(\$)	MSRP(\$)	인하 폭
아이오닉 5 SE RWD SR	125 kW (168 hp)	42,600	35,000	7,600
아이오닉 5 SE RWD	168 kW (225 hp)	46, 650	37,500	9, 150
아이오닉 5 SEL RWD	168 kW (225 hp)	49,600	39,800	9,800
아이오닉 5 Limited RWD	168 kW (225 hp)	54,300	45, 075	9,225
아이오닉 5 SE AWD	74 kW + 165 kW (320 hp)	50, 150	41, 000	9, 150
아이오닉 5 SEL AWD	74 kW + 165 kW (320 hp)	53, 100	43,300	9,800
아이오닉 5 XRT AWD	74 kW + 165 kW (320 hp)	55, 500	46, 275	9, 225
아이오닉 5 Limited AWD	74 kW + 165 kW (320 hp)	58, 200	48, 975	9, 225
			7	l료: 현대차

CarePeople Home Health, Inc. ■ Korean ~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entreville, VA 20121



Home Health

People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페어팩스, 센터빌, 리치몬드, 뉴폿뉴스 북버지니아와 남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Annandale, VA 22003

- 센터빌 오피스 Accounting/ Bookkeeping (FT/ 유경험자) -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Annandale, VA 22003

CarePeople.net 新地分批州地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Gaithersburg, MD 20879



트럼프 "4주 후 시진핑 만날 것 '미국산 대두' 가 주요 의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 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을 가 질 계획임을 재확인하면서 중국의 미 국산 대두 구매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 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소셜 미디어 글을 통해 "4주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것이다. 대두는 대화 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며 "대두와 다른 작물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했다.

또 "중국이 단지 '협상'을 이유로 구 매를 중단하면서 우리 나라(미국) 대 두 재배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우리는 관세로 엄청난 돈을 벌었고, 그 수익의 일부를 농민들을 돕는 데 쓸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4주 후'는 이달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을 가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 석. 두 사람은 이달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경주에 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정상회의를 계 기로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킨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 령은 지난달 19일 시 주석과의 통화 이 후 소셜미디어에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는 글을 올렸다. 1일 '4주 후 시 주석과 회담'계획을 언급하면서 이 를 재확인한 셈이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중간 관세전쟁이 격화하면서 중국 은 보복성 조치로 미국산 대두 수입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파이낸셜타임 스(FT)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같은 기간 미국산 대두 650만 톤의 구매 계 약이 있었지만, 올해는 구매·선적 물 량이 전무한 실정이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는 대 신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국가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있다. FT는 "최 근 대두의 가을 수확기를 맞으면서 미 국의 대두 재배 농가가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대두는 주로 가축 사료로 사용되며 산업 · 소비재 제조에도 활용된다. 대 두유 등 부산물은 바이오 연료부터 소 방용 포말 등 다양한 제품 생산에 사

김형구 기자

미재무 "한국서 열릴 미중정상회담서 무역협상 돌파구 있을것"

이달말 경주 APEC 계기 트럼프-시진핑 회담에 기대 피력

스콧 베선트(사진) 재무장관은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 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도널 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을 계기로 미중 무역 협상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방송과 의 인터뷰에서 미중 간 협상 교착 상황 의 완화나 긍정적인 일을 몇주 안에 볼 수 있느냐는 질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달 말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점"이라 고 답했다. 이어 "내가 미국 측 대표로 중국과 무역협상을 이끄는 상황에서 가장 위안이 되는 건 양국 지도자 간 상 호 존중이 있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두 사람이) 직접 만나서 향후 무역 방 향을 설정하는 데 매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



통령의 리더십과 시 주석과의 관계, 시 주석의 트럼프 대통 령에 대한 존중을 고 려할 때" 미중간 후 속 협상에서 "매우 큰돌파구가 있을 것

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중 무역협상은 중국이 가을 수확철에 접어든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등의 문제로 교착된 상황이다. 베선트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 총리를 양국 수석대표로 한 협상은 그 간 4차례 진행됐고, 현재는 '관세 전쟁' 휴전을 11월 10일까지로 연기해놓았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에 대해 "안타깝게도 중국 지도부가 미국 농민, 특히 대두 재배 농민을 무역협상에서 인질 혹은 장기 판의 말(pawn)로 삼기로 결정했다"고 비판한 뒤 "화요일(7일)에 우리 농민, 특히 대두 농민을 위한 상당한 지원 관 련 몇몇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고 밝

혔다.

레이건부터 트럼프까지…15번째 셧다운

클린턴, 오바마때도 겪어 최장 기록은 35일간 계속

연방정부가 1일부터 셧다운(일시적 업 무정지)에 들어갔다. 1980년대 이후 15 번째다.

연방 의회가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는 셧다운은 지난 1981년 로널드레이건 행정부시절처음

셧다운은 의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 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에 이르 지 못할 때 벌어진다.

이러한 예산 편성 절차는 1976년 처 음 마련됐다. 그 근거는 1974년 개정된 예산법에 있다.

의회가 제때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적은 그 전에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지

금처럼 정부 기능이 멈추는 셧다운으 로이어지지는 않았다.

셧다운의 법적 해석이 나온 것은 1980년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이다. 당 시 벤자민 시빌레티 법무부 장관은 "의 회 승인 없이 행정부가 예산을 지출하 는 것은 위헌"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로 인해 결손방지법(Antideficiency Act)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 안이 통과될 때까지 정부 업무를 중단 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됐다.

이후 1981년 11월 20일, 레이건 행정 부에서 처음으로 셧다운이 공식 발생 했다. 첫 셧다운은 이틀간 이어졌다. 레 이건 전 대통령은 재임 8년 동안 무려 8 차례 셧다운을 겪었는데, 역대 대통령 중최다기록이다.

단, 대부분의 셧다운은 사흘을 넘지 않았다. 후임인 조지 H. W. 부시 전 대 통령도 1990년 10월 6일부터 사흘간 셧 다운을 경험했다.

민주당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1기 시절 두 차례 셧다운을 겪었다. 1995년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이어 같 은 해 12월 16일부터 1996년 1월 5일까 지 무려 21일간 이어진 셧다운이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기 시절 인 2013년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셧다 운을 겪었다. 핵심 쟁점은 '오바마케어 (ACA)' 예산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정부 시절 에도 두 차례 셧다운이 있었다. 첫 셧다 운은 2018년 1월 20일부터 이틀간 이어 졌다. 같은 해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는 무려 35일간 계속됐다.

역사상 최장 기록이다. 당시 쟁점은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 포함 여부였다.

김경준 기자

너바나 앨범 '알몸 아기' 모델 또 패소

세계적인 록밴드 너바나의 명반 '네버 마인드(사진)' 앨범 표지에 아기 시절 알 몸사진이 실렸던 당사자가 또다시 소송

을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1일 CNN방송 등에 따 르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 젤레스 연방법원 페르난도 올귄 판사는 너바나의 앨 범 '네버마인드' 표지 사진

속 아기였던 스펜서 엘든이 엘든이 제 기한소송을 각하했다.

올귄 판사는 "합리적인 배심원이라 면 해당 사진을 음란물로 보지 않을 것" 이라며 "이 사진은 아이가 목욕하는 장 면을 찍은 가족사진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엘든은 2021년에도 너바나 멤버와 음

반 제작사 유니버설 뮤직 그룹을 상대 로 아동 성착취에 해당한다며 같은 취 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2년 법원에

서 기각됐다.

너바나 측 변호인 버트 데이슬러는 이번 소송이 기각된 직후 "법원이 쓸모 없는 소송을 종결시키고 창의적인 의뢰인을 거짓의 혹으로부터 해방해줘 감사

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1991년 발표된 '네버마인드'는 전 세 계에서 3000만 장 이상 판매된 명반으 로 꼽힌다. 앨범 표지에는 낚싯바늘에 걸린 1달러 지폐를 향해 물속에서 헤엄 치는 아기의 모습이 담겼으며 이는 자 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담은

한영혜 기자



3215 Corporate Ct.,Ellicott City, MD 21042







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703) 312-0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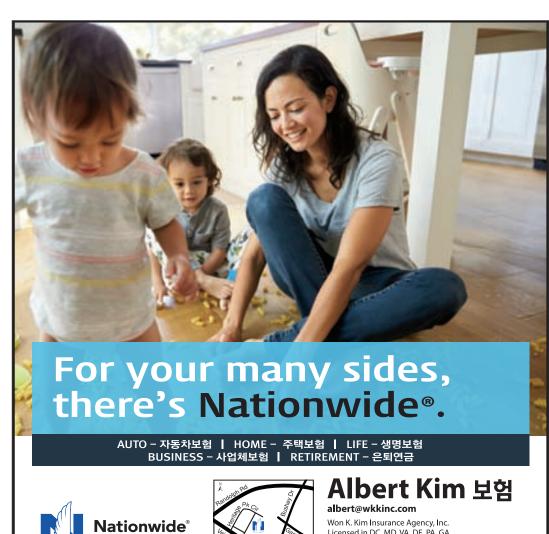
Virginia

Baltimore

(301) 962-8300 (410) 465-5499

것으로 해석돼 왔다.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O (08/16) 7400524

일본 총리, 최연소냐 여자 아베냐 정책통이냐

自民党

포스트 이시바는 누구

44세 고이즈미, 각종 여론조사 선두 '우익행보' 다카이치, 당원 투표 1위 '의원가문' 하야시, 요직 두루 거쳐

내일 1차 투표, 과반 땐 총재 선출 2차 상위 2인 결선, 의원표심 관건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인물은 '정계 프린스'로 불리는 고이즈미 신지로(小 泉進次郎·44) 농림수산상이다. 고이즈 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83) 전 총리 차남으로 28세에 정계에 진출했다. 지 난해 첫 일본 총리직에 도전, 3위에 그 치며 고배를 마셨지만 올해는 다른 양 상이다.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 서 참패하며 퇴진을 선언한 이시바 시 게루(石破茂) 총리에게 '퇴진'을 직언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숨에 각종 여 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고이즈미·다카이치 양강, 하야시 바짝

뒤를 쫓고 있는 이는 이른바 '여자 아 베'로 알려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 苗·64) 전 경제안보상이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



를 이어오는 우익 성향 인사다. 최근 인 기가 급상승하며 '다크호스'가 된 하 야시 요시마사(林芳正·64) 관방장관도 총리 자리를 시야에 두고 있다. 일본 정 부의 대변인 격으로 외상·문부과학상· 교육재생담당상·농림수산상 등을 고 루 거쳤다. 도쿄대 법대,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나온 수재로 '의원 가문' 출신



4일 오후 1시 시작되는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295표)과 당원·당우 (약91만명의 표를 295표로 환산) 의 투표로 결정된다. 1차 투표 에서 과반을 차지하면 총재로 선출되지만 없을 경우엔 상위 2인만 2차 결선을 치르는 데 의원 표심이 결정타 기시바 시게루 가 된다. 이 때문에 전



문가들은 "결선 투표에 누가 올라오느 냐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 았다.

> 아사히신문의 지난 달 29일 조사에 따르 면 의원 지지가 가장 많 은 후보는 고이즈미 다. 295명 중 72명 이 지지를 표명했

다. 2위는 하야시(57명) 3위는 다카이 치(37명)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당원· 당우를 대상으로 한 니혼테레비(닛테 레) 조사(9월 23~25일)에선 다카이치 (34%)-고이즈미(28%)-하야시(17%) 순으로 조사됐다. 앞선 조사(19~20일) 과 비교하면 1위가 뒤바뀐 상황이다. 다만 "모른다"거나 "결정하지 않았다" 는 비율(12%)이 상당해 표심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나카키타 교수는 고이즈미나 하야 시의 총리 당선시엔 "상대적으로 안정 적 정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 다. 그는 "고이즈미 후보는 하야시 후보 에 비하면 경험치가 부족하지만 그 부 분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평 가했다. 이미 이시바 정권 계승을 표방 하고있어임금상승등정책면에서큰 변화를 예상하기 어려운 데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총리의 측근인 기하라 세이지(木原誠二) 의원, 재무 상으로 보수 성향인 가토 가쓰노부(加 藤勝信) 의원 등 중진들이 다수 참여하 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야당인 일본유신회와의 연립 가능성이 있는 것도 고이즈미 후보에겐 유리한 점으 로 꼽혔다. 다만 "힘있는 사람들이 (진 영에) 많이 있지만 이들을 어떻게 배치 하느냐가 다소 불안요소가 될 것"이라 고 평가했다.

도쿄=김현예 특파원

공책 한권·쌍안경 하나 들고 떠난 '침팬지 어머니'

세계적인 동물학자이자 침팬지 행동 연구의 권위자인 제인 구달(사진) 박 사가 1일 별세했다. 91세.

제인구달연구소는 이날 "연구소 설 립자인 구달 박사가 잠든 채 세상을 떠 났다"며 "그는 야생 동물이 처한 위협 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람과 동물, 자연이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평생을 노력했다"고 밝혔 다. 구달 박사는 미국 강연 투어 중으 로 캘리포니아주에 머무르고 있었다.

영국 태생의 구달 박사는 어릴 때부 터 동물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고등 학교 졸업 후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돈을 마련해 케냐 나이로비로 떠났다. 그곳에서 만난 고고학자 루이스 리키 박사의 제안으로 탄자니아 곰베에서 침 팬지 관찰 연구를 시작했다. 공책 한권 과 쌍안경 한 쌍을 들고 떠난 탄자니아 에서 한 평생을 침팬지 연구에 바쳤다.

구달 박사는 곰베에서 침팬지가 나 뭇가지를 이용해 개미를 잡아먹는 모 습을 발견했다. 당시 학계는 인간만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이 를 뒤집는 순간이었다. 그는 "1960년대 초엔 많은 과학자가 인간만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며 "다행히 나 는 대학에 가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몰 랐다. (침팬지에게서) 기쁨과 슬픔, 두 려움과 질투를 느끼는 동료라는 존재

를 배웠다"고 회고했다.

구달 박사는 침팬지가 고기를 즐겨 먹으며, 가족과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냈다. 침 팬지와 가족처럼 어울리는 모습으로 '침팬지의 어머니'로도 불렸다.

구달 박사는 1977년 본인의 이름을 딴 연구소를 설립하고 야생동물 서식 지 보호와 침팬지 처우 개선을 위한 활 동을 펼쳤다. 장윤서 기자



카타르 달래고 우크라 밀어주는 트럼프

"안전보장·러 타격정보제공"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에너지 인프라를 장거리 타격할 수 있 는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미국은 중 동의 우방인 카타르에 대해서도 "공격

받을 경우 방어에 나서겠다"며 안전보 장을 약속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 "미국 이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장 거리 미사일 공격에 필요한 정보를 우 크라이나에 제공할 것"이라고 보도했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우 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지 원하겠다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 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전쟁 발발 이 후 러시아 본토에 대한 드론 공격을 감 행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확전에 대 한 우려 등으로 정보 공유를 제한해 왔

술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의 사용에 도 제한을 뒀다. 우크라이나가 에이태 큼스를 사용할 때마다 승인 과정을 거 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 나는 지난 봄 이후 러시아 영토를 향해 에이태큼스를 발사하지 못했다.

특히 트럼프 행성무는 소 바이는 행

이번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표적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우크라이 정부 시절 지원한 사거리 300km의 전 나는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러시아의 정유시설과 발전소, 송유관 등 에너지 인프라를 더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 게 됐다. 아울러 WSJ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장거리 순항미사 일 '토마호크'와 함께, 또 다른 순항미 사일인 '바라쿠다'의 지원 여부도 검토 중이다. 하수영 기자

DC건물 | NNN | 창고 | J 리스팅 하실 건물주분들 최상의 조건으로 팔아드립니다!

Why US?

- 미국 3대 상업용 부동산 회사 Marcus & Millichap 의 업무경험을 통해 차별화된 마케팅전략들이 있습니다.
- 30,000+바이어 / 브러커 Data Base 보유 *Post Card, eflyer 발송
- •Offering Memorandum, YouTube 제작
- Social Media, 20+ 웹사이트 광고
- •CoStar, LoopNet Premium 리스팅 광고 싸인설치, Banner, Wall Signage 제작

- 샤핑센터를 직접투자 / 관리한 경험으로, 매각을 위한 건물주의 이익과 직결되는
- 상업용 부동산 리스팅 전문업체 CoStar가 선정한 TOP POWER BROKER, 팀 플레이를 통해 비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최상의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 DC건물 테넌트와 TOPA (Tenant Opportunity to Purchase Act) 거래 전문, 개발업자와의 연계로 최상의조건으로 팔아드립니다.
-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프렌차이즈, 도매, 호텔, 카와시, 코인런드리,리커 비지니스 / 건물 매매 케빈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 FULL SERVICE FOR REDUCED FEES! 브로커에게 주는 커미션에 대한 부담을



VA CAP 7.25% NOI 연인컴 \$185K 5테넌트, 땅 1.4에이커



Supermarket 건물 Beer & Wine License 3유닛, 5,900 SF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는 케빈신!

- CoStar 선정 TOP POWER BROKER
- Broker Licensed DC, VA, MD
- Marcus & Millichap 근무경력 / NNN Investment Shopping Center 투자 / Property Management 경력
- ICSC Member Internationa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703-395-3123







10월가을맞이 풍성한혜택

기간: 9.27.2025-10.29.2025 조건: 기간내 주문 & 10월 내 설치

타사고객 대상 특별 이벤트

일시불 구매

^{최대}**25**%

\$80 상당 블렌더 증정

5년 이상 렌탈 시

최대 **3** 개월 렌탈비 할인

+ \$100 Gift Card



BRAND STORE

쿠쿠 AS 공식 수리처

- VA 직영점 13826 Braddock Rd #C, Centrevile, VA 20121 Tel. 571-321-7776
- 롯데마트 Ellicott City Tel. 410-750-8011 H Mart Annandale Tel. 240-595-2257

CP-SN102HW, CP-TN100S/DS, CP-TN102S, CP-TN102GPK, CP-P012T/G, CP-P011T/G, CP-QN1401SW, CP-KN501HW, CP-FR601HW, CP-FR601SW,CP-FR602SW, CP-ACR1620SW, CP-ABNC100, CP-WN601HW, CP-WN601SW, CAC-F3010FW, CAC-D2020FW, ND-A0609FG

일 반 제 품 CP-ADR051UW, CP-MN031W/WH, CAC-C1020FW, CAC-AA0910FW, CBT-IS1131REW/RRW, CBT-I1030RW, CWS-AO201W

사은품은 지역/매장/판매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권 및 결정권은 CUCKOO RENTAL AMERICA INC. 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쿠 렌탈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판매처 및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해당 프로모션 복수 고객 시 사은품 중복 증정, 단 패키지 상품은 사은품 적용 제외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동일 설치처 필수
-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CUCKOO

"나와라" "전례 없다" …추석 뒤 국감, 최대 이슈는 '김현지 출석'

김영진 "부속실장,출석사유사라져" 조정식 "대통령흔들기하겠다는것"

송언석 "정권 1.5인자 실체 밝힐 것" 국민의힘 '김현지 비리TF' 검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정국 의 핵으로 떠올랐다. 추석 연휴 뒤 13 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김 실장 이 증인으로 출석하는지가 핵심 쟁점 이 된 가운데 김 실장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이 가파르게 형성되고 있다.

김 실장을 향한 야권의 공세가 거세 지자 2일 여권은 단일대오를 형성했다. 친명 중진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부속실장이 국정감사에 나온 예가 없다"며 김 실장이 출석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난달 25일 "지난 30년간 총무비서관이 (국 감에) 안 나온 전례가 없다"고 말한 지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의 원은 "제가 (국감에 나가야 한다고) 얘 기했던 건 김현지가 총무비서관일 때" 라며 지난달 29일 대통령실 개편으로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보 직을 옮긴 김 실장의 출석 사유가 사라 졌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친명 중진인 조정식 의원은 전날 SBS 라디오에서 "김 실장은 일 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사심이 없는 사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가운데)이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람"이라며 "(보직 이동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것을 갖고 '국감에 출석하 지 않기 위해 자리를 옮긴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JTBC 인터뷰에서 김 실장이 국회에 불출석하려고 보직을 바꿨다는 주장 에 "무리한 이야기다. 왜 그래야 하나" 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국회 가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르는 게 행정 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 이견이 사실상 정리되면서 김 실 장이 국회에 나올 가능성은 작아졌다 는 평가다.

여권이 전열을 정비한 건 야권의 '이 재명 대통령 흔들기' 우려 때문이다. 전용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을 흔들기 위해 과거 보좌진 으로 근무했던 사람을 어떻게든 흔들 어서 흠집 내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국회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의원들이 있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조정식 의원도 전날 "(김 실장 출석을 통해) 대통령 흔들기를 하겠단 건데 적 절치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30년 가까이 이 대통 령과 함께 일해 온 김 실장의 '만사현 통'(모든 일은 김현지 실장으로 통한 다) 논란을 키우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

장동혁 대표는 "급작스럽게 인사이 동을 통해 (국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건 그 의혹을 전부 다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는 "김 전 총무비서관, 현 부속실장이 과거 이 대통령이 변호사이던 시절 성 공 보수를 대신 받았다는 기사가 나왔 다"며 "김현지는 단순한 측근을 넘어

정권의 1.5인자, 이 대통령과 경제 공 동체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현지의 실제 위상 과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 철저하게 밝 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모 장관이 국장급 2 명을 보직 이동시키려고 했는데, 김 실 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왜 상의 없 이 인사를 하려고 하느냐'며 제동을 걸 었다고 한다"며 "국정농단 의혹"이라 고 적었다. 김장겸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 "김현지 실장이 김인호 산림청장을 '은사'로 칭하며 정책자문역에 앉혔다 는 제보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은 "김 실장은 '종합 비리 세트'처럼 제보가 수없이 들어온다"며 "당 차원에서 '김현지 비 리 태스크포스(TF)' 설치도 고민 중" 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의 출신 대학을 놓고 논란이 확산하는 기현상도 벌어 졌다. 지난달 30일 김장겸 의원은 "김 실장이 성남에 있는 신구대 환경조경 학과를 졸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김 실장은) 상명여대 (현 상명대) 93학번으로 1998년 2월 졸 업했다"며 "1998년 3월 (서울) 양재에 서 이 대통령, 성남시민모임 관계자, 김 현지, 그리고 저, 넷이 처음 만나 인연 을 맺었고, 이후 김현지가 성남시민모 임에서 활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규태·조수빈 기자

경찰, 이진숙 면직되자마자 자택서 체포 … 선거법 위반 혐의

〈전 방송통신위원장〉

"좌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해" 지난해 탄핵안 가결뒤 유튜브 발언

경찰 "이, 여섯 차례 소환요구 불응" 이 "국회 출석으로 못 갔는데 체포 방통위폐지 모자라 수갑 채우나"

경찰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고발한 이진숙 전 방송통 신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 6분쯤 이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대 치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체포영 장을 집행한 뒤 압송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 됐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자 강 제수사로 신병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41분 쯤 수갑을 찬 채 경찰서 앞에서 "전쟁

이다. 이재명(대통령)이 시켰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시켰나"라고 반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대통령이 시키는 말을 듣지 않아서 법까지 만들 어 저를 자르고 기관까지 없앴다. 그것 도 모자라 수갑까지 채운다"고 주장했 다. 그러면서 "그날 국회 출석하느라 경 찰서 못 온 것을 갖고 수갑을 채웠다" 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 원장이 총 여섯 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 지 않았다"며 "이에 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 았다"고말했다.

이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 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가결 된 뒤 한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 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 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의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이 공 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 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 더 장의 체포 소식에 긴급 기자간담회를 불어민주당 의원 및 시민단체는 이 전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문제의 발언 당

앞에서 수갑 찬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진숙 전 방송

통신위원장이 2

일 영등포경찰서

시엔 조기 대선이 있을지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체포영장 집행 사 유가되느냐"고 항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전 위원

열고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김현 지 제1부속실장의 문제가 터지자 추석 밥상에 이 모든 것들을 감추려고 올린

것이 이 전 위원장 체포였다"며 "이재 명 정권이 벌이는 야만적 정치이자 공 포정치"라고 말했다. 반면에 더불어민 주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제라도 자연인 이진숙씨의 범죄 혐의를 제대 로 수사하기 바란다"며 "만시지탄"이 라고 적었다.

이날 야간 조사를 거부한 이 전 위원 장은 9시 이후엔 유치장에 머물 전망이 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선 체포시점 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경 찰의 영장 신청 여부는 3일 결정될 것 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을 폐지하는 방송미디 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국 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난달 30 일자동면직됐다

김정재·김창용·김규태 기자



아리랑 청소년 문화 축 8 한글날 기념식



파탑스코 밸리 주립공원 내 무궁화동산 8020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 대회장: 강고은

연락처

• 준비위원장: 황보철 (206)851-5700

무궁화동산 조성위원장: 권명원 (301)385-9821





한인 여러분들의 아리랑 USA 공동체를 향한 많은 관심과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개인이나 단체 후원해 주실 분들은 아래 주소로 후원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소: 9170 Rumsey Rd., Columbia, MD 21045 Jang Doo Seok

Pay to: Arirang USA INC

🐠 준비하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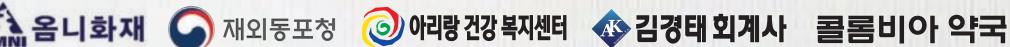
● 김삼우 ● 고은정 ● 권명원 ● 김경태 ● 김경훈 ● 김양곤 ● 김오회 ● 유미혜 ● 마크 장 ● 박금달 ● 박진동 ● 박태수 ● 밥 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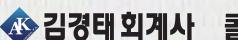
● 유승규 ● 유영집 ● 이선옥 ● 임병문 ● 장세영 ● 폴 정 ● 조명옥 ● 지용연 ● 진철민 ● 한정란 ● 박철환

🥟 특별 후원









🦚 협찬

● JUB한국문화예술원 ● 남스태권도 ● 묵제 권명원 ● 풍물패 한판 ● 주상희 무용단 ● ① 중 양일 보

🤷 개인 및 단체 함께 하신 분들

- 소형남 (전 호남향우회장)
 조선화로
 니코
 신촌
 모드니에
 콩포차 (볼티모어시티)
 고소희 꽃집
 베세토 (최광주 대표)
- **편한나라 척추신경** (송영성 원장) 백성옥 & 백수지 부동산 정승연 회계사 부가티골프동우회 (회장 김인덕) 메릴랜드호남향우회 (회장 김기현)
- ACE Auto Care (남정길 대표)
 보네쁘티 제과점 (한훈섭 대표)
 코비 정부조달 협회 (메튜리 회장)
 알렉스 김 (전 호남향우회장)
- 모커리 척추신경병원 (김동국 원장) 동중부장애인체육회 (회장 남정길) KOHO (대표 손영석) MD한인회 (회장 안수화) 폴 정 부동산
- MD체육회 (회장 오세백)
 MD총한인회 (회장 정현숙)
 MD식품주류협회 (회장 마리오 장)
 MD시민협회 (회장 장영란)
 몽고메리 한인회 (회장 김용하)
- 옛날떡집 정재철 (전 호남향우회장) 평안한방병원 (김경훈 원장) UNBS (대표 조용보) 미주 태권도 장학회 (회장 장세영)
- YL Design Factory, LLC (대표 이영하) 권대성 회계사 강창구 (전 민주평통워싱톤협의 회장) 유승규 프로 에이스 치과 (원장 신의식)
- 마이 라이프 재단 (회장 이정숙) 남스 태권도 (관장 남정구) 영한의원 (원장 유영집) 엘리콧시티 약국 황용식 김경태 회계사 콜럼비아 약국

● 유미혜 보험 ● 황용식 (전 호남향우회 이사장) ● MD체육회 (이사장 최철호) ● 김대중재단 (회장 강창구) ● 대한민국광복회위싱턴지회 (회장 문 숙)

주최: 아니아 씨스 등에 회장 장두석 Tel: 443.691.7968 **Arirang USA Community**















SEMPIO





THE KIMCHI Hong's Kimchi

SELECTED VARIEITES/1.1 LB



BIBIGO Korean Stew

비비고 김치찌개/된장찌개

KIMCHI/DOENJANG - 16.22 OZ



PULMUONE Natto

풀무원 순생나또

FROZEN/10.5 OZ(6 EA/PKG)







CUSTOMER SERVICE T. 877, 427, 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RED/BLUE



LIGHT BLUE/

X 3 EA/SET





ROZEN/SELECTED VARIETIES/2.82-3.2 OZ















HAI0

Frozen

Pollock

해오름

명란젓

2.2 LB

Roe

Seasoned





연평도 알배기

간장게장









내란특검 검사들, 윤 재판서 '상복 시위' "집단반발 가세

검사 7명, 검정 넥타이 매고 출석 김건희특검 "복귀 요청" 이틀 만 검찰 내부망서도 응원 이어져 부장검사 "의견 표명이 항명인가"

2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파견 검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단 체로 검은색 정장, 검정 넥타이를 맨 채 집단 상복 시위를 벌였다. 지난달 30일 김건희특검팀 파견 검사 40명 전원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지 이틀 만에 검 찰청 폐지 정부조직법에 항의하는 검 사들의 집단행동이 다른 특검으로 확 산한 것이다. 이날 시위는 여당인 더불 어민주당에서 "집단행동은 항명"이라 며 징계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가운데 나왔다.

이날 오전 10시 내란특검팀 소속 박 억수(사법연수원 29기) 특검보와 이찬 규(34기) 부장검사를 제외한 파견 검 사 7명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 란 우두머리 사건 22차 공판에 검은색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22차 공판에 특검팀 파견 검사들이 검은색 정 장과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했다. [법원 CCTV 캡처]

정장·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했다. 상복 을 연상시키는 복장으로 검찰청 폐지 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항의를 표시 했다.

그러자 윤전 대통령 측 배의철 변호 사는 이날 "10여 명의 검사가 모두 검 정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다"며 "파격 검사들이 초상을 의미하는 검정 넥타 이를 착용함으로써 검찰청 폐지와 수

사·기소 분리 원칙이 모순이란 점을 항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 라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달라고 했다. 이에 박억수 특검보 는 "넥타이 어쩌고 하는 유의 이야기가 재판정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라 며 "내란특검법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법리적이지 도 않다"고 반발했다.

내란특검은 3대 특검 중 파견 검사 가 59명으로 가장 많다. 순직해병특검 은 14명이다. 내란특검 파견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 관련 최근 내부 모임을 했 지만 의견 표명은 하지 않다가 이날 상 복 차림으로 무언의 항의 의사를 표시 했다. 이들은 상복 항의의 의미를 특검 보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일각에선 조은석 특별검사 모친인 이방자(87) 여사가 지난달 29일 별세해 수사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조용한 모친상'을 치른 데 대한 중의적 의미란 해석도 나왔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도 특검 파견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달 29일 사의를 표명했던 최인상(32기) 서울북 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는이날 오전 "검사의 의견 표명은 항명 인가"라며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지만 개혁 과정에 아무런 의견 표명도 할 수 없다는의미는아닐 것"이라고 적었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 장)도 이날 오후 "검사의 직무를 둘러

싼 모순적 상황에서 검사들에게 그 양 심에 반하는 수사 업무를 강요하는 건 강제노역과 같다"며 "공직자가 업무의 적법성에 대한 이견을 표명하는 건 정 당한 권리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렇게 겁박하는게 최고수 준의 갑질"이라고 밝혔다. 전날 전현희 민주당 3대 특검 특위위원장이 특검 파견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무 부가 징계 등 강력하게 조처해야 한다" 고촉구한걸 비판한 말이다.

강수산나(30기) 서울서부지검 부장 검사도 "수사력 있는 정예 멤버들이 특 검에 대규모로 차출돼 일선 검찰은 검 사부족으로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며 "더 씁쓸한 건 특검 검사들이 실적을 내더라도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상황 이 변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라고 글 을 썼다. 그러면서 "지금의 의견 제시 를 개개 검사의 불만으로 폄훼하지 않 으면 좋겠다. 3·1운동으로 독립이 이뤄 지진 않았지만, 의미 없었다고 하진 않 는다"고 덧붙였다.

김성진·정진호 기자

대통령 '기계적 상소' 지적 다음날, 여당 '검찰 상고 제한법' 발의

이정문의원발의…당"개인이낸것" 왔다. 전문가 "3심제 근간 무너뜨리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기계적 상소 (上訴·하급심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재심리를 요구하는 것) 관행을 공개 비판한 뒤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에 서 검사의 상고(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소)를 제한하는 법안이 나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검사 가 1심 재판부의 무죄나 면소(免訴·유 무죄 판단 없이 소송 종결) 또는 공소 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도 항소 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할 경우 대법원 에 상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 사소송법 개정안(371조의2신설)을 대 표발의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같으

면 상고하지 말라는 취지다. 현행법은 상고에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 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 사들이 되지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 가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하면서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일단 이정문 의원안이 지 도부나 정책위와 사전 논의되지 않은 개인 입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조계에서는 법으로 상고를 제한 하는 것 자체가 3심제의 근간을 무너뜨 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통 화에서 "검사가 자기 판단 아래 포기할 수 있는데도 입법부가 하지 말라고 결 정하는 것은 완전한 가해자 관점이라 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검

사는 개인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를 대 신해 법정에서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재명 천동설'을 위해 1심에서 끝내자는 얘기와 재판소 원(재판 결과에 대해 헌법소원)을 도 입해 4심까지 가자는 얘기가 난무하고 있다"며 "시스템이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강보현 기자

국정자원 화재 닮은 셧다운, 울산·군포·태백서도 있었다

〈누수〉〈항온항습기고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주요 국가 전산망이 마비 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의 자체 정보관리 시스템도 UPS(전력 끊겨도 배터리 통해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등의 이상으로 수시로 장애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국 정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 2등급 정보시스템 장애현황' 자료 등에 따르 면 지난해 9월 29일 울산 근로복지공 단 지하 1층에 설치한 UPS실에서 화 재가 발생했다. UPS용 리튬이온 배터 리가 아닌 UPS 자체에서 불이 시작됐 다. 화재로 공단 내 전력 공급이 멈췄

고 '부과고지시스템'(2등급) 등이 먹 통이 됐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으로 "UPS 내부 전기적 문제 외에 기기 노 후와 정비 불량 등 기계적 요인도 배제 할수없다"고했다.

같은 해 1월 14일 경기도 군포시 청 사 지하 1층 UPS실에 누수가 발생하 면서 4층 전산실이 정전됐다. 당시 비 상 상황을 대비한 전원 '이중화' 장치 는작동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9월 강원도 태백시는 전 산실 내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 해 주는 항온항습기 등이 제 기능을 못 하자 전체 시스템 가동을 중단시키 는 셧다운 조치를 했다. 이때 지자체

용 전자행정 시스템인 '새올시스템'(2 등급)에 피해가 집중됐다. 태백시 본 청은 물론 행정복지센터의 모든 민원 업무 처리가 9시간가량 멈췄다. 태백 시 관계자는 "당시 UPS에 이상 전류 가 흐르면서 항온항습기에 영향을 준 것"이라며 "대체 장비를 확보해 복구 에 나섰다"고 했다.

최근 2년간 국민생활과 밀접한 1, 2 등급 시스템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전 산장애만 451건 달한다. 이해식 의원 은 "국정자원 대전 본원과 같은 '판박 이' 재난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시스템은 가동돼야 하는데 전수조사

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취약점을 확인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세정보시스템을 비롯해 주소 정보관리시스템 등 36개의 지자체 주 요 행정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지역 정보개발원(KLID)의 백업 체계도 부 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시스템 은 예산 문제로 '이중화'가 이뤄지지

국정자원 본원 시스템 복구는 더디 기만 하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체 시 스템 647개 중 115개 시스템이 정상화 됐다. 복구율 17.8%다. 국민 생활과 밀 접한 국민신문고 안전디딤돌 등은 멈 춘상태다.

더딘 복구의 주된 원인으로는 분진

이 지목된다. 본원 5층에는 전체 시스 템의 51%인 330개가 몰려 있다. 전소 되지 않은 7.8전산실 안 시스템도 분진 에 뒤덮인 상태다. 시스템을 구동하는 서버는 오염에 민감해 전문 청소가 필 요하다. 장비를 일단 정밀하게 분해한 뒤 분진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분진 제거 작업 을 5일까지 끝낼 계획"이라고 했다. 5 층 시스템과 연동된 다른 층의 시스템 도 현재 재가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 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중대본 부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현재 의 복구 속도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 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 고 있다"며 "정부는 복구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욱 기자





www.saffordbrownhyundaifairfax.com

Assurance CAR CAR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2025 엘란트라 하이브리드, 2025 투싼, 2025 산타 페 하이브리드 2025 아이오닉 5, 2026 펠리세이드

2025 Elantra Hybrid: 1.99% APR for 48 months or \$2500 Finance Bonus Cash

2025 Tucson: 1.99% for 60 month or \$1750 Finance Bonus Cash

2025 Santa Fe Hybrid: 1.99% for 60 months for \$4250 Finance Bonus Cash

2025 Ioniq 5:0% APR for 72 months or \$11000 Retail Bonus Cash 2026 Palisade: 4.99% for 60 month or \$500 Finance Bonus Cash

모든 뉴 새포드 브라운 현대 자동차는 미국 최고 수준의 10년 10만마일 무상 서비스와 Owner Aassurance가 지원됩니다. 페어팩스 블루버드에 위치한 SAFFORD BROWN HYUNDAI FAIRFAX를 방문하세요. 703-352-0444 SAFFORDBROWNHYUNDAIFAIRFAX.COM

Sung Lee korean speaking salesman



친절은 기본 !! 가격과 서비스 최고의 만족 보장 !! 703-352-0444 10925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독일·일본, 내연차 매달리다 시장 뺏겨 …한국 이대론 위험"

김성환 초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정부·기업함께전환위한노력해야

원전, 안전성 담보로 수명 연장 가능 신규 원전은 짓는데 시간 많이 걸려

기후·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지난 1일 출범했다. 한 부처가 환경 규제와 에너 지 산업 진흥을 함께 맡는, 헌정사 최초 의 실험이다. 초대 수장이 된 김성환 기 후부 장관은 에너지 산업을 키우면서 이재명 정부 임기 말인 2030년까지 온 실가스를 40% 줄이는 목표(2018년 대 비)도달성해야한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중앙일보에 "매우 절박한 심정이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 임기 안에 재생에너지를 지금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에너 지 고속도로 등 새로운 전력망을 구축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김장

-환경과 에너지 조직을 합치면 서로 견 제도, 양쪽의 고유 목표 추구도 힘들어지

"기후와 에너지를 통합 관리하는 건 세계적인 추세다. (지금까지) 산업부는 싸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면 됐 고, 환경부는 기후위기를 막아야 하는 데 실행 수단은 없었다. 떨어뜨려 놓으 니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생에너 지 꼴찌가된 거다."

-재임 중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단연 재생에너지를 신속히 확대하 차산업 변화 시그널 정확하게 주고 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일이 다. 현재 누적 34GW(기가와트) 규모인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GW로 확대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전력망을 구축해야 하다."

-두 가치(에너지·환경)가 충돌한다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입지 갈등 없는 방식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 예 전처럼 멀쩡한 나무를 자르고 태양광 을 깔 수 있는 건 아니다. 영농형·지붕 형 태양광, 마을 공공용지 같은 공간 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생태계를 파괴 하지 않고 얼마든지 태양광·풍력을 할

'한국형 에너지 믹스(energy mix)' 에 대해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를 획기 적으로 늘리고 석탄 등 화석연료는 빠 른 속도로 줄이는 것"이라며 "이 과정 에서 원전은 안전성을 담보로 기저전 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LNG는 기동성 을 고려해 비상전원으로 활용할 계획" 이라고 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 화하는 방안으로는 수상 산단 등 유휴 부지 활용, 햇빛・바람연금 같은 인센티 브확대를 내놨다.

- 재생에너지를 급속히 늘리면 중국산 태양광 장비가 국내 시장을 장악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오직 원전만 하면서 태양광의 '태'자도 못 꺼내게 했다. 3년 전만 해도 한국 태양광 산업은 (세계에 서) 유일하게 중국에 맞설 경쟁력이 있 었는데, 그마저도 약화됐다. 지난 3년 의 후과(後果)다. 지금이라도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그나마 있는 산업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기후부는 정부세 종청사에 새로운 현판을 내걸고 1일부터 업무에 들어갔다.

붕괴된다."

-전기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전기료가 올라간다'는 건 이제 맞지 않은 전제다. 태양광은 이미 석탄·LNG보다 저렴 하고, 육상풍력도 비슷한 가격까지 왔 다. 해상풍력도 규모의 경제가 되면 석 탄·LNG보다 저렴해질 거다. 다만 전 력망 인프라에 투자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되 발전 비용을 낮춰 요금 인상 압박을 조절하 - '탈원전 시즌2'란 예상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확대 하면서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결합한 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다. 설 계 수명이 다한 원전은 안전성을 담보 로 해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신규 원전은 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 에 이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 하겠다."

-기후부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 기본)을 짠다. 11차 전기본에서 계획됐던 신규 원전 2기는.

"12차 전기본을 세우려면 당연히 11 차 전기본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조정 한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민 의 여론도 수렴할 수 있을 거다."

기후부가 직면한 가장 큰 난제는 국 제사회에 약속한 '2030 NDC(국가 온실 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이다. 5년 뒤인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 비 40%를 감축해야 한다. 또 2035 NDC 도설정해야한다. 기후부는 EU(유럽연 합)처럼 2035년부터 내연차 판매를 금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선 10년 내 신차를 100% 전기 차로 전환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독일·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내연차 에 머뭇거리다가 세계 시장을 뺏기고 있다. 현재 세계 전기차 시장의 7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대 한민국의 내연차와 부품 기업들은 훨 씬 빠른 속도로 위험에 처한다. 변화의 시그널을 정확하게 주고 정부와 기업 이 함께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

-강릉 가뭄으로 기후위기에 대비한 수 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커졌다. 신규 댐 중 단은 이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세계는 댐을 허물며 자연을 복원하 는 추세다. 물을 가두는 게 능사가 아 니다. 지난 정부에서 주민 의견을 듣지 않고 지자체가 신청하면 어지간하면 다 받아줘 불필요한 토목 사업을 하려 다 문제가 생겼다. (가뭄·홍수 대비는) 지역 특성에 따라 맞춤형 처방을 해야 한다. 강릉도 속초처럼 눈에 보이지 않 는 지하 저류댐 같은 걸 만드는 게 숙

천권필 기자

여성이 장수하지만, 노인 신체점수는 남성이 월등

질병청 '노인 생활기능' 첫 조사 남성 평균 92.1점, 여성 80.9점 여성노인 골다공증, 남성의 8배 "남성,활동량 많아 골밀도 높아"

서울 양천구 H씨(81)는 저혈압·난청이 약간 있으나 척추·관절이 건강해 일상 생활에는 지장 없다.

정부가 노인의 생활 기능을 평가했 더니 H씨 같은 남성이 여성보다 우수 한것으로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노인 생활 기능 척도 (LF-10)를 측정해 지난달 30일 공개했 다. 노인 기능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65세 이상 남성 812명, 여성 1139명을

조사했는데 하체·상체 동작 등 10개 항 목(만점 100점)을 400m 걷기, 5kg 물건 들기 등의 다양한 문항으로 평가했다.

전체 평균 점수는 85.9점이다. 65~69 세가 92.6점이고 80세 이상은 70.6점 이다. 남성 평균 점수는 92.1점, 여성은 80.9점으로 11.2점 차다. 80세 이상 남 성은 82.9점, 여성은 64.3점으로 남성이 18.6점 높다.

골다공증도 조사했는데, 남성은 3.8% 앓는 반면, 여성은 31.6%로 월등 교수는 "지금의 고령 여성은 쪼그리고 히 높다. 80세 이상은 각각 4.3%, 45.9% 다. 남성은 나이가 들어도 골다공증이 별로 안 생기지만 여성은 증가한다는 뜻이다.

오경원 질병청 건강영양조사분석과

장은 "골다공증이 있으면 기능 점수가 떨어졌다"고말했다.

여성의 기능이 떨어지는데 왜 오래 살까(기대수명 남 80.6세, 여 86.4세). 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은 "여성은 50대에 폐경이 시작돼 여성호르몬이 줄면서 노화가 일찍 찾아온다. 근육량 이 줄고 골다공증이 급격히 진행된다" 고 말했다.

최정연 분당서울대병원 노인병내과 앉거나 무릎을 꿇고 일한 게 기능 점수 저하로 나타난 듯하다"며 "남성은 젊 어서부터 활동량이 많아 골다공증이 적다"고 설명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이래서 명절 추석 황금연휴를 앞둔 2일 부산역에서 마중 나온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반기고 있다. 기상청은 추석 연휴 동안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2일부터 4일까지는 남부지방, 5일부터 추석 당일인 6 일까지는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송봉근 기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메디케이드/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862-5395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NVAR Top Producer Zillow Premier Agent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UNDER CONTRACT

클립턴 싱글홈

방5/화4.5/차고3, 1.05 에이커 새 지붕, 새 HVAC

\$1.5M



페어팩스 타운홈

\$3,300 방3/화2.2/차고1, End Unit

편리한로케이션, 관리잘 된 집

센터빌 타운홈

\$3,000

방3/화2.5/차고1, End Unit

업그레이드 많이 함, 굿로케이션

\$3,000 방2/화2.2, 2 Assigned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u> शल् १२३</u> व १५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밝고 환한집, 업그레이드 많이함, 교통편리

Alexandria

넓은 방2, 화1, 탁 트인 넓은 뷰, 완전히 리모델링한 콘도, 새 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SS Appliances

\$274,900













Woodbridge 타운홈

렌스가 있는 뒷마당, 3중 구소 업그레이드된 지붕과 창문, 허팅 & 에어컨 시스템







Reston

고급 콘도, 방2, 화2, 나무 마루, 잘 리모델링된 밝고 환한 콘도, 새 페인팅, 업그레이드한 부엌과 화장실, 어메니티가 좋음















Alexandria

방2, 화2, Top Floor 엔드유닛, 업데이트 되고 잘 관리된 콘도,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때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경매)



Principal 세리 리 703.244.6526





Hyundai of the Early Incorporation of the Early

우리말 바루기

'들려야' 하나 '들러야' 하나

"엄마, 학교 끝나고 친구 집에 들렸다 올게 요." "다른 데는 들리지 말고 빨리 와야 한 다." 엄마와 아이의 대화를 옮긴 것이다.

여기에서 '들렸다' '들리지'는 바르게 적 은 것일까? 말할 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인데 막상 적으려고 하니 '들리다'인지 '들르다'인지, 또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헷갈린다.

예문에서처럼 지나는 길에 잠깐 들어가 머무르는 행위를 나타낼 때는 '들리다'가 아 닌 '들르다'를 써야 한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 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 서 '들러'가된다. 그러므로 예문을 "엄마, 학 교 끝나고 친구 집에 들렀다 올게요" "다른 데는 들르지 말고 빨리 와야 한다"로 고쳐 야 한다. 이처럼 '들렸다'나 '들리지'가 잘못 쓰기 쉬운 형태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 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 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 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 용하는 단어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오 랜만에 친정에 (들렀더니/들렸더니) 맛있는 음식을 손에 잔뜩 (들러/들려) 보냈다"에서 는 각각 어떤 단어를 골라야 할까. 정답은 "오랜만에 친정에 들렀더니 맛있는 음식을 손에잔뜩들려보냈다"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 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 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 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①중앙일보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시한부

다정한 서재



클로이 리 칼럼니스트

정말시간이 많을까?

교실 풍경, 친구들과의 대화, 아직 전하지 못한

고백 같은 장면들이 싱그럽게 펼쳐지 는 와중에 그모든 것이 '끝이 정해진 시간'이라는 조건으로 바뀌자 갑자기 아련해졌다. 남은 날이 많지 않음을 알 잊고 있던 삶의 진실일지도 모르겠다.

소설 속 윤서의 부모님이 윤서가 7살 때 경제적 인 이유로 세상과 등진 후 윤서는 막연하게 죽음 을 꿈꾸며 살아간다. 주위 어른들은 부모가 없는 아이라는 이유로 어울리지 못하게 한다. 또 가정 환경 때문에 애가 침울한 분위기라고 수군거린 다. 그렇게 윤서는 세상과 멀어졌다. '정상 가족'이 라는 프레임으로 각 가정들을 위계화하고 있진

최근 통계에 따르면, 미국 고등학생 다섯 명 중 한

한다. 그리고 약 9%는 실제로 행동에 옮겼다고 한 다. 숫자만 놓고 보면 차갑지만 그 숫자는 곧 누군 가의 이름이고, 내 옆자리에 앉아 있던 친구이며, 어쩌면 바로 나일 수 있다. 괜찮다는 말 뒤에 감춰 진 외로움과 불안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백은별 작가는 서문에서 "청소년 자살이라는 문제는 생각보다 우리 근처에 있고, 흔하고 무서 운문제이다.

아이의 우울감은 그저 철없는 게 아니고, 오히 려 어른보다 미성숙한 나이이기에 충 동이 심하고 그만큼 위험한 일이라는 걸 우리 사회가 인지하는 계기가 되었

> 으면 좋겠다."고 소설을 쓴 이유를 말했 다. 작가의 말처럼 우리 사회구조의 문 제에 질문을 던지는 소설인 셈이다. 왜 유독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들, 특히 여 성 청소년들이 생을 마감하게 되는가?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책은 정

직한 거울이 된다. 소설 속 몇몇 인물들이 유서를 향해 보여주는 따뜻한 태도는 '누구든 다를 수 있 다'는 당연한 사실을 상기시킨다. 다양한 환경과 배경이 뒤섞여 사는 이곳은 피부색만큼이나 사 는 모습도 제각각이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며, 누 군가를 배척하기는 쉽지만, 받아들이는 용기가 진짜 성숙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시한부〉를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도삶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라 부르고 싶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다정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

시한부

게 된 수아의 마음은 두려움과 혼란으 로 흔들리지만, 동시에 일상의 작은 순 간들을 전보다 더 선명하게 바라보기 시작한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않은지 생각해본다.

책을 읽으며 미국 청소년들의 현실을 떠올렸다. 명이 지난 1년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고려했다고

이아침에

아버지의 편지

작은 언니가 카톡으로 편지 한 장을 보내왔다. 해 묵은 상자를 정리하다가 발견했다는 아버지의 편 지였다. 눈에 익은 아버지 글씨. 약간 날이 선 듯한 아버지의 글씨체를 보니 아버지를 만난 양 눈물 이 핑돌았다.

누군가가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하면 세상

은 갑자기 낯설어진다. 백은별의 〈시한부〉는 바로

그런 상황에 놓인 중학생의 시선을 따라간다. 열

네 살 중학생 작가가 쓴 소설답게 죽음을 다루면

서도 무겁고 냉철한 시선 대신 10대의 마음으로

주인공 수아는 친구 윤서가 중학교 2학년 크리

스마스에 자살로 떠난 뒤 자신도 1년 뒤 크리스마

스에 죽기로 결심하고 1년을 살아간다. 눈앞에서

친구의 죽음을 목격한 수아가 겪는 정신적 고통

과 1년 동안 학교와 가정에서 생활하며 느끼는 생

각과 감정의 변화가 진솔하다. 작가는 이 소설에

서 자신의 일기를 포함해 자전적 내용을 일부 담

고 있다. 소설은 또래 시점으로 청소년 우울증과

자살을 솔직하게 그리고 있는데, 친구가 세상의

전부였던 그 시절 풋풋한 감성이 떠올라 더욱 몰

윤서가 죽은 게 나 때문일 거라는 길고 긴 죄책

감과 불안감과 가끔씩 미칠 것만 같을 때 들리는

윤서의 목소리와 날 야유하는 반 아이들의 목소

리가 내 손목의 상처들을 만들고 집에 아무도 없

을 때는 소리를 지르며 울었다. 하지만 결코 부모

님이 알아서는 안 되니, 학원을 꼬박꼬박 다니고

늘 무언가를 미루며 살아왔다. "나중에 해야

지", "아직 시간 있으니까" 하며 넘겼던 순간들. 하

지만 백은별의 소설 〈시한부〉는 우리에게 묻는다.

생의 끝과 시작을 이야기한다.

입감이 좋았다.

출석했다. - p.95

'형도 어미 받아보아라'로 시작된 사연은 언니 가 일전에 아버지께 무엇인가를 보낸 선물에 대 한 답신이었다. 아버지 팔순을 바라본다고 적은 것을 보면 70대 후반이리라 짐작된다. 자식 보고 싶은 마음을 숨기지 않고 내비치는 아버지를 생 각하니 가슴이 먹먹했다. 성인이 된 후 우리 8남 매가 모두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날은 드물었다. 어느 해는 언니가 아기를 낳아서, 또 어느 해는 오 빠가 군대에 가서, 멀리 공부하러 떠난 나로 인해 또 몇 년간 함께하지 못했으니까.

글 속에는 내가 비인에서 건강이 회복되어 열 심히 수학하고 있다는 얘기와 함께 내 동생이 D 건설 기획실에서 절대적인 존재로 열심히 근무하 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다. 멀리서 가끔 아버지께 편지를 올렸는데 그때도 나는 몸이 약해 아버지 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다.

형제 많은 집안에 끄트머리인 나와 내 동생은 가끔은 안 낳아도 되는 아이였다는 자조적인 푸 념을 했다. 3남 5녀 8남매 중, 나는 다섯째 딸, 내 동생은 셋째 아들이니 뭐 그리 반갑고 귀했겠나 싶다. 하지만 늘그막의 우리 아버지에게는 다시없 는소중한존재였던 것같다.

자식 길러보면 부모 마음 알 것이라는 얘기와, 팔순을 바라보며 돌아갈 날이 머지않다는 대목 에서는 목이 메었다. 단하나 못이 박힌 게 있다고 하면서도 그 얘기는 상세히 적지 않으셨다. 여름 쯤 언니를 만나러 가겠노라는 말씀을 끝으로 편 짓글은 마무리되었다.

아버지 가슴에 박힌 못은 무엇일까. 언니와 통 화하면서 물었더니 언니도 도통 모르겠다고 했 다. 아버지는 가슴의 못을 빼고 떠나셨을까. 내가

공부를 마치고 귀국한 지 4년여가 흐른 후 아버지 는 먼저 떠난 엄마의 뒤를 따라가셨다. 말년의 아 버지는 자식들에게 폐가 될까 전전긍긍하셨다. 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익숙하게 듣게 된 것 중의 하나가 남에게 폐 끼치지 말라는 말이었다. 틈나 는 대로 전화나 편지를 하라는 말씀 속에 아버지 의 외로움이 짙게 깔려 있었다.

눈을 감고 아버지의 얼굴을 가만히 그려본다. 워싱턴 광장에 풀어 놓고 '헤쳐 모여' 하며 서로 줄로 이으라고 하면 아버지와 나는 부녀라는 것 을누구도 알아볼 수 있도록 외모가 닮았다.

30년도 더 넘은 아버지의 편지가 시공을 넘어 오늘 나를 울리고 있다. 아버지는 유언으로 '동기 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는 말씀을 남겼다. 오늘 아 버지의 편지를 보니 아버지가 살아오신 것만 같 아 아버지 얼굴을 더듬듯 전화기 속의 편짓글을 가만히 쓰다듬어 보았다.

이영미 수필가

\$3,300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鱼胀

2.사우스라이딩 타운 3.애쉬번 타운

1. 우드브리지 싱글

Coming Soon \$639,000 방3, 화2.5, 차고1, 좋은학군 /동네, 전부 업그레이드 RT1/95/234

Coming Soon \$645,000 2014년, 방3, 화2.5, 차고2, Dulles Airport, RT28

Coming Soon \$670,000 2012년, 방, 화3.5, 최고 학군, RT267/50/28/607, 덜러스 공항

4. 웃슨 하이, 프로스트미들 2025 새 싱글 방5, 화5.5, 5,000sqft, 차고2, 모던 디자인, 123/236/GMU 12. 도미니언 밸리 컨트리 클럽, 헤이 마켓 럭셔리 싱글

7. 맥클린 콘도 \$1,450,000 8. 센터빌 벽돌타운 방 3, 화2.5, 차고1,

5. 첸틀리 하이 싱글

6. 던로링메트로앞 콘도

방2, 화2, 1,050sqft, Mclean High, RT 495/66/267/7, Metro, Tysons Galleria 옆

방4, 화3.5, 4,000sqft, 차고2,

286/50/lees comer rd

방1,화1,1/2층오픈 loft,

전부 리모델링, 마루

전부 업그레이드.

\$409,000 11.애난데일 싱글 \$589,000

20

\$1,050,000 9. 애쉬번타운

\$460,000 10. 게인스빌 골프 싱글 **SOLD** \$1,060,000 게인스빌 레이크 매나사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 **SOLD** \$699,000

RENT

BRIAR WOODS high, 267/607

전체마루, 2 차고, 덱,

Braddock/Backlick Rd 만나는 Giant 인근, 최고 로케이션, 방3, 화3, 카포치1, 새지붕, 드라이브웨이 4대, 뒷숲, 2,312sqft, 0,46acre, Sold As Is, 리모델링, 투자가치 높음, 동네시세 보다 십만불이상 싼집, 395/236/495/95/66

\$1.699,000

황계실 571-239-6054

1에이커 숲속, 6,700sqft, 방 5, 화 5.5, 3차고 Wolf/Sub Zero 주방, 커스텀 벽난로 하드우드 바닥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 선룸,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욕실, 드레스룸 **야외 리조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 인로우 스위트, 미디어룸, 게임룸, 바 포함

29/Braddock/28/66

Hmart인근,

(야외 주방, 벽난로, 연못, 분수, 데크, 음향 시스템 등) 골프장, 클럽하우스, 수영장, 테니스, 산책로, 최고 학군



聖者 最外의 等型

क्रिया के क्रिय के क्रिया के क्रिया के क्रिया के क्रिया के क्रिया के क्रिया



410-370-4229 · 301-275-1494

EMET.Inc NMLS #201332

<u>대한민국 '트리거 60' 기획</u> △17

여행은 개안이다. 국내든, 국외든 세상 을 보는 눈을 넓혀 준다. 한가위 연휴의 시작, 공항이 또 북적댄다. 올 연휴 기 간 일평균 22만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 할 것이라는 보도는 이제 뉴스가 아니 다. 현재 상당수 한국인에게 해외여행 은 특별한 경험이 아닌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 기폭제가 된 게 1989년 1 월 1일 시행된 해외여행 자유화다. 불과 한 세대 만에 세계 곳곳은 '저 멀리 이 국'이 아닌 '손에 잡히는 이웃'이 됐다. 그간 모든 게 급변했다. 여행의 형태와 의미, 그리고 세계를 보는 우리의 생각 이 확 달라졌다. 지리적 거리보다 문화 적 거리가 결정적인 시대로 진입했다.

#1989년 6월=김형렬(당시 22세)씨 는 생애 첫 해외여행을 결심했다. 한국 자유총연맹에서 교육을 받고 외무부 에 여권을 신청했다. 전역신고서·재학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만 한 다 발이었다. 여권은 약 3주 만에 나왔다. 일본 대사관에서 비자 심사를 받고 은 행에서 엔화로 바꿨다. 부산에 가서 일 본 시모노세키로 가는 여객선을 탔다. 현해탄을 건너는 배에서 밤새 『론리 플 래닛』을 읽으며 계획을 짰다. 일주일 뒤 귀국길, 그는 양손에 '코끼리 밥솥' 두 개를 들고 있었다.

#2025년 8월=김다인(21)씨는 최근 홍콩을 다녀왔다. 네 번째 해외여행도 즉흥적이었다. 저비용항공사의 할인 이벤트 광고를 보자마자 왕복 15만원 짜리 티켓을 끊었다. 준비랄 것도 없었 다. 비자는커녕 환전도 필요 없었다. 외 국에서도 쓸 수 있는 체크카드만 챙기 면됐다. e심은 진즉에 깔아놨으니 국제 통화도 문제없었다. '에어비앤비'에 접 속해 홍콩의 아파트 방 한 칸도 미리 빌 려두었다. 첫 해외여행 때 여권 자동등 록을 해놔서 인천공항 출국심사도 바 로통과했다.

불과 30여 년 만에 출국자 40배 늘어나

위의 두사람은 같은 한국인일까? 일 단 이제 외국에 나가는 건 큰일이 아니 다. 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한국인 출국자는 40배 가까이 늘었다(88년 72 만명→2024년 2868만 명). 여행객 숫자 만 급증한 게 아니다.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자유는 한국인의 마음속 국경을 허물었다. 한국인의 세계화가 비로소시 작됐다.

1979년 12·12로 권력을 잡은 신군부 는 우호석인 여돈 형성을 위해 여러 유 화 조치를 발표했다. 그중 해외 진출 확 대 방침도 포함됐다. 첫 조치가 81년 시 행한 단수여권 폐지다. 여권에 유효기 간을 둔 1회용 여권이 사라졌다. 이태 뒤에는 '관광여권'이 생겼다. 이전까지 는 출장·유학·이민 목적이 아니면 출국 이 금지됐다. 이전 정부는 두 가지 이유 로 국민의 출국을 제한했다. 하나가 남



80년대 성장에 따른 자신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 지난여름, 해외여행객으로 북적이는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 추석 연휴엔 하루 평균 22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 1989년 여권 발급에 연 령 제한이 사라지면서 대학생의 배낭여행이 본격화했다. 🛭 해외여행은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외화 낭비의 주범으로 몰렸다.

북 대치에 따른 안보 문제였고, 다른 하 나가 외화 절약이었다.

자유화 조치 직전인 85년 해외로 나 간 한국인은 48만 명을 겨우 넘었다. 일 본 · 미국 다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많았다.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외국 에 나간 한국인의 상당수는 열사(熱沙) 의 나라로 날아간 산업일꾼이었다. 모 두투어 홍기정(73) 전 부회장은 "80년 대에는 해외 출장을 가려고 해도 회사 매출액을 따졌기 때문에 대기업 직원 같은 극소수만 출국할 수 있었다"고 회 고했다.

관광여권이 처음 생긴 83년에는 50 세 이상으로 여권 발급을 제한했고, 88 년에는 30세 이상으로 발급 기준을 낮 췄다. 89년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조치 는 이 연령 제한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중앙일보는 88년 12월 23일자 사설에서 "해외여행 자유화는 분단과 냉전과 가 난에 찌든 과거의 굴레 하나를 벗는다 는 감회 깊은 상징"이라며 "국력의 성장

을 새삼스레 확인해 주는 조치"라고 평 가했다.

해외여행 자유화 원년. 세상은 하루 아침에 바뀌었다. 시중은행이 앞다퉈 해외여행 적금을 만들어 판매하고, 여 행사의 해외여행 상품이 신문 광고면 을 도배했다. 하지만 92년까지 외국을 나가려면 남자는 한국자유총연맹, 여 자는 예지원에서 소양교육을 받아야 했다. 반공의식 고취가 주 내용이었다.

그 시절 해외여행은 일생일대의 이 벤트였다. 최대한 많은 나라에서 입국 도장을 받아와야 어깨에 힘을 줄 수 있 일주' 등 지금은 보기 드문 패키지여행 이 인기를 누렸다. 허니문 시장도 재편 됐다. '남산→온양온천→설악산→제주 도' 순으로 진화해 온 허니문은 90년대 들어 국경을 넘어 해외로 진출했다.

부정적인 시선도 있었다. 해외여행 은 외화 낭비의 주범으로 찍혔다. 미제 담배, 스위스제 '맥가이버 칼', 독일제

'쌍둥이 칼', 일제 '코끼리 밥솥' 등 소위 '물 건너온 것들'이 '외국물 먹고 왔다' 는 증거로 유통됐다. 통계도 있다. 1989 년 출국자 1인 평균 지출액이 1942달러 였다. 팬더믹 기간(2020~2022년)을 제 외하면 역대 최고치다. 양담배와 양주 반대 시위를 보도하는 기사가 잇따랐 다. '어글리 코리안(Ugly Korean)'이 란 단어가 등장한 것도 이맘때였다.

해외여행 자유화를 이끈 두 가지 큰 동인이 있다. 첫째는 80년대 축적된 경 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 증가, 그리고 87년 민주화운동이 가져온 사회 전반 의 혁명적 변화다. 일부 지도증의 특권 비슷했던 해외여행의 족쇄가 풀리게 됐다. "우리도 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는 사회적 욕망이 들끓었다.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배낭족 러시

바뀐 세상에 신속하게 대응한 건 90 년대 청춘이었다. 87년 민주화를 이뤘 고, 이듬해 서울 올림픽을 목격한 그 시

절의 젊은이는 장벽을 넘어 세계로 나 갔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걸 깨달은 청춘은 너 나 할 것 없이 지도 밖으로의 행군을 감행했다. '배낭여행 1세대'의 탄생이다.

그들은 거리낄 것이 없었다. 89년 대 학생 과외가 풀려 부모 눈치를 안 봐도 됐다. 어학연수 열풍이 불었고, 워킹홀 리데이 비자도 도입됐다.

배낭족이 앞다퉈 간 곳은 유럽이었 다. '유레일패스'를 손에 쥐고 최대한 많 은 국가를 찍고 오는 게 유행이었다. 이 탈리아 로마 벤치에서 새우잠을 자고, 호주 아웃백 목장에서 소똥 치우며 여 권에 찍히는 도장의 개수를 늘렸다. 그 시절, 100개국을 넘게 돌아다닌 한국 인이 속출했다. 배낭여행 1세대 출신인 장영복(61) 신발끈여행사 대표는 "야 간열차에서 잠자거나 호스텔을 전전했 다"며 "북한에 대한 호기심으로 일부러 북한 식당을 찾아가기도 했다"고 돌아

90년대 개성과 자기표현을 중시했던 X세대가 탄생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다. 세계를 유랑한 배낭족은 이전 세대 와 전혀 다른 신인류였다. 그들은 현지 에서 익힌 영어 실력과 글로벌 감각으 로 새천년을 맞이했다. 외국에 대한 의 식, 혹은 무의식적 콤플렉스에서 벗어 났다. 이들을 중심으로 렌터카·펜션 같 은 선진국 레저 문화가 들어왔다. 김봉 석 문화평론가는 "90년대는 집단의 시 대에서 개인의 시대로 바뀌는 변곡점이 었다"며 "바로 그때 해외여행이 자유화 되면서 개인의 사고 영역이 급격히 확장 됐다"고평가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지구촌 여행시장 의 큰손이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K팝 스타 이름을 읊으며 한국인을 반기는 현지인과 한국어로 "빨리빨리"를 외치 는 현지 가이드가 있다. 한국의 여권 파 워는 현재 세계 3위로, 한국인은 비자 없이 192개국을 여행할 수 있다. IT기 술의 발달로 여행 양상 또한 혁명적으 로 변했다. 21세기의 여행자는 종이지 도를 들여다보지 않는다. 구글 맵만 열 면 된다. 저가항공 덕분에 제주도 항공 료보다 싼 티켓으로, 일본에서 우동 먹 고 오는 주말이 가능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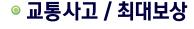
돌아보면 불과 한 세대만의 변화다. 그간 세계를 돌고, 보고, 듣고 온 우리 들의 경험은 21세기 지구촌 경쟁을 헤 쳐가는 에너지가 됐다. 현지 문화에 대 한 이해가 외교와 동상의 기조이기 때 문이다. 문화가 경제요, 경제가 문화인 시대다. K팝·K드라마 등 최근 불붙은 K컬처 파워도 이 같은 젊은 창작가들 의 글로벌 감각 덕분이다. 해외여행 자 유화는 "한국인의 정서적·심리적 무대 가 좁은 한반도를 벗어난 결정적 사건 (세계여행가 한비야)"임에 틀림없다.

손민호·최승표 기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지니스 관련 민사 소송



Regina Domingo Chris Shin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소송<mark>전문</mark>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DC LAW GROUP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건경하 오래가는 임플란트"

Root Canal Treatment

Implant

임플란트 - 잇몸치료 - 치아교정 Orthodontics Periodontal Invisalign Surgery

- 치아성형 응급환자 신경치료 Veneer Lumineers **Emergency**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natura dent

치과 메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시 설

화재 수습 중에 속속 드러나는 황당한 전자정부 실상

공무원 12만 명 사용 G드라이브는 백업도 없어

사용기한 10년 지난 배터리 교체 권고도 묵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에 서 화재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복구는 여전 히 더디다. 어제(2일) 오후 기준으로 전자정부 업무시 스템 647개 중 115개(약 18%)만 복구됐다. 워낙 방대한 피해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늦다. 유엔이 칭 찬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정부라고 홍보해 왔지 만, 이번에 드러난 것은 기본적인 안전 관리부터 부실 한 외화내빈 'IT 강국'의 민낯이다.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 백업(복사·저장) 부실과 시스 템 이중화(중복 구축) 부재다. 이중화 적용 시스템은 47개(7.2%)뿐이고, 248개(38%)는 이중화와 백업이 모 두 없는 것으로 드

러났다.

특히 충격적인 것 은 중앙부처 공무 원 12만5000여 명

이 사용해 온 업무용 클라우드(온라인 저장 장치)인 'G드라이브'가 백업조차 없이 전소됐다는 사실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G드라이브에 쌓인 858테라바이트 (TB)의 방대한 자료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다. 정부 는 G드라이브를 '다'급 시스템으로 분류해 외부 백업 을 의무화하지 않았고, 저성능·저가형 장비로만 운용 했다. 2018년 이후 업무자료를 개별 PC가 아니라 반드 시 G드라이브에 저장하도록 지침을 내린 상황이어서 피해는 치명적이다. 소속 공무원 전원이 G드라이브를 사용해 온 인사혁신처는 부처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 고한다.

조선시대에도 왕조실록은 다섯 곳에 나눠 보관했는 을 최소화해야 한다.

데, 21세기 디지털 정부가 그보다도 못한 백업 체계를 운영해 온셈이다.

IT업계에서는 '3-2-1' 백업이라는 원칙이 있다고 한 다. 사본 3개, 다른 저장장치 2개, 외부 1곳 분산 보관 이 기본이라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백업을 일부 중요 시스템에만 적용하는 접근 자체가 잘못됐음을 보여준 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보 인프라 관리 체계 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인재(人災)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수두룩 하다. 배터리 권장 사용 기한(10년)의 교체 권고를 묵 살한 사실도 드러났고, 배터리 이전 작업에 영세 통신

설비 업체와 아르 바이트생이 투입 됐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고도의 안 전이 요구되는 작

업을 비전문 업체와 비숙련 인력에 맡겼다면 명백한 안전 불감증이다.

무정전 전원장치(UPS)와 리튬이온 배터리 이전 과 정에서 전기공사 안전 수칙을 어긴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당시 작업자들이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 지 등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당초 정부는 화재 직후 4주 이내 복구를 공언했지 만, 지금 상황으로는 이행이 불투명하다.

추석 연휴 동안 화장시설 예약 등 국민 생활과 직결 된 서비스 불편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긴 연휴 기간을 활용해 복구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국민 불편과 불안

AI 등 첨단산업 투자에 금산분리 완화는 옳은 방향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1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 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인공지능(AI) 산업에 한 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 통령은 "(AI 투자)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안전 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 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각국 정부와 정보기술(IT) 대기업이 경쟁적으로 AI 투자에 공격적 으로 뛰어들고 있는 글로벌 현실을 고려할 때 옳은 정 책 방향이다.

금산분리 규제는 1982년 도입돼 인터넷은행 등에 제 한적으로 일부 규제 완화가 있었지만 골격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재벌 기업이 금융회사를 사금고화하 거나 산업자본의 부실 위험이 은행 시스템으로 전이 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43년 전 만들어 진 금산분리 규제는 현재의 기업 환경과 어울리지 않 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 피털(CVC) 보유 제한이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일반 지주사는 원칙적으로 금융업을 영위 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 소유가 금지되는데, 2021년 공 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주사의 CVC 보유를 지분 100% 인 완전 자회사 형태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부채비율은 자기자본의 200% 이내, 펀드 조성 시에는 외부자금 비중을 40% 이내, 해외 투자는 CVC 총자산의 20% 내에서만 허용하는 등 투자와 출자에

걸림돌이 많다. 이런 규제를 적절하게 풀어주면 모회 사나 외부 투자자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 금산분리 규제가 첨단산업 투자의 걸림돌이라며 재계가 주장해 온이유다.

지난달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 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과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 장은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다. 기업과 금융권의 이런 투자 의지를 굳이 막아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AI뿐 아니라 첨단산업에 시중 자 금이 흐를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

금융권의 산업자본 투자를 막는 반대 방향의 금산 분리 완화도 균형 있게 검토할 때가 됐다. 금융사는 비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지분을 15% 넘게 보유할 수 없다. IT 발전으로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사라진 '빅블러' 시대에 낡은 규제가 금융산업의 발목을 잡아 서는 안 된다. 은행의 디지털 전환과 빅테크와의 경쟁 되다가 은행의 이자 장사 비난에 밀려 흐지부지됐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민주당 일각과 시민단체가 오랫동안 반대해 온 이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인터넷 은행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 때도 진통이 심했다. 글로 벌 규제 환경을 참고해 금산분리 규제가 한국만 있는 '규제의 갈라파고스'가 되지 않도록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윤정권의대증원닮은검찰청폐지

이상렬의 시시각각

時視各角



이재명 정권의 검찰청 폐지는 윤석열 정 권의 의대 정원 확대 사태를 돌아보게 한다. 의사와 검찰이라는 전혀 다른 분 야에 칼을 들이댄 두 사안엔 의외로 공 통점이 적지 않다.

우선 '닥공(닥치고 공격)' 스타일. 윤 정권의 의대 증원엔 토의와 절충이 용 인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재가한 2000 명 증원은 불가침 성역이 됐다. 윤 전 대 통령은 절친 의사들의 고언도 듣지 않았 다. 딴 얘기를 하는 참모들은 박살이 났 다. 2035년 의사 1만 명 부족을 추정한 3 과 갈등을 빚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개 연구가 근거였지만 논란의 소지가 다 분했다. 기존 의사들의 은퇴가 늦춰지는 점, 의료기술이 빠르게 첨단화하고 있는 점 등은 중요하지만 정교하게 반영되기 어려운 변수였다. 의사들의 필수의료·벽 지 근무 기피, 응급실 뺑뺑이, 3분 진료 등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의대 증원의 동력으로 삼은 듯했다.

검찰청 폐지 역시 '다른 의견'이 용납 되지 않았다. 야당의 반대엔 아예 귀를 닫았고, 여당 내 반론은 들을 수 없었다. 법조인들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 았다. 결국 민주당이 공언한 대로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가 올라오게 됐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8년 만에 검찰청 이 간판을 내릴 상황이다. 검찰의 원죄 가 적지 않다.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 자 주 구부러지고, 정권의 하수인처럼 비치 기도 했으며,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되기 도 했다. 검찰의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검찰의 과오와 폐지는 다른 차 원의 문제다. 형사사법 시스템을 대수술 하는 이 일이 이렇게 속도전으로 진행될 일인가.

개혁이란 이름으로 잘못 설계된 정책 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의 대 증원 사태 당시 전공의들이 이탈하면 서 의료시스템이 곳곳에서 멈춰섰다. 중 환자 수술도 미뤄지기 일쑤였다. 피해는 환자와 가족들 몫이었다. 의·정 갈등 6개 월간 예상치를 뛰어넘는 초과사망자가 3000명이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청 폐지는 검수완박(검찰 수사 권 완전 박탈)을 외쳐 온 민주당의 숙원

사안이다.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검수 완박 이후 세상이다. 사법 전문가들은 형사사건 처리의 지연과 미해결을 우려 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 가 입게 된다. 현장의 변호사들은 대체 로 비슷한 얘기를 한다. 문재인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기관 캐비닛 에 사건이 쌓여 가고, 사건 처리는 마냥 지연되고 있다고. 관련 통계에서도 확 인된다.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검찰의 3 개월 초과 장기미제 사건(2만2564건)은 2022년(9268건)의 약 2.4배에 달한다. 미제 사건이 는다는 것은 범죄자들에겐 천국 같은 상황이겠으나 피해자들에겐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다. 무고한 시민 들도 안전하지 않다.

김건희 여사 수사로 윤 전 대통령 측 월례회의에서 일선 검사 24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른 적이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전면 재수사한 김세희·이자영 검사, 경찰에서 종결한 '계곡 살인사건' 의 진실을 규명한 오승환 검사, 세 모녀 전세사기 전모를 밝힌 박현규 검사 등이

민주당, 검찰청 폐지 강행 처리 수사권 조정 후 미제 사건 급증 보완한다지만 약자 피해 우려

다. 그들 같은, 정치와는 거리가 먼 절대 다수의 검사들이 지금도 국민의 삶을 지 키며 정의를 세우고 있다. 여당의 수사・ 기소 분리 방침이 이런 일상의 정의 구현 을 어렵게 하는 것이어선 안된다.

또 한 가지 공통점. 의대 증원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개혁이었다. 전공의들 반 발은 예견된 것이었지만, 정부는 대비책 이 없었다.

이번 검찰 개혁에서 정부·여당은 앞으 로 1년간 검찰청 폐지의 보완책을 마련 한다고 한다. 소와 외양간의 비유를 들 자면, 새 외양간은 짓지도 않았는데 일 단 기존 외양간부터 부수고 보는 격이다. 앞뒤가 한참 잘못됐다.

어느 정권이든 정작 국민보다 정치적 계산을 앞에 뒀던 개혁은 끝이 좋지 않 았다. 반대 의견을 경청하지 않는 밀어붙 이기는 탈이 나는 법이다. 결국 그런 것

수석논설위원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불편·불만 처리센터

**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목디스크,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종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가00195 저작권자(C)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전재계약제휴사미국THENEW YORKTIMES, THE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FINANCIAL TIMES 일본時事通信, 日本經濟新剛 구독료 | 월정 20,000원/1부 1,000원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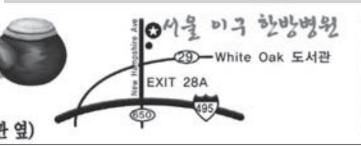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VA, MD, DC 면허 소지

저서

-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설침구혈위대전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비즈니스의 안전한 길잡이!! 중앙일보

①위성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런천미트 CJO Luncheon 340G

dire

크라운

신짱

동원참치 모든맛

DW Tuna All Flavor 4 Pack





KODA

찹쌀가루 2.99 Sweet Rice Flour 1LB 249

2⁴⁹ EA

10.99



10.99

아씨 잡채당면 _{4.99}

청정원 순창 구수하고 시원한 조개멸치 된장양념

Assi Sweet

_____ CJ 해찬들 진한맛 고추장







7.99

599

6.99 4 99 EA

8.99

해태 에이스 모든맛 Haitai Ace Cracker 6.99

해태 영양 대추 Haitai Dried Red Date 10 Packs



エユ버섯 Assi Sliced Shintake Mushroom





16.99

빙그레 우유

비비고 사골곰탕 Bibigo Beef Bone Flaveroed Soup 16.99





<mark>찢은 도라지</mark> Assi Dried Sliced Bellflow Root



14.99

129.99

199



19.99

9.99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 and description.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www.koreausnpb.org



The th ANNIVERSARY

한미국가조찬기도회 하나되게 하소서

(시편 133:1 / 요한복음 17:21)

한미 양국과 열방을 위한 기도 모임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일지: 2025. 10. 7 (화) 오전 8시

장소: The Church for All Nations (올네이션스 교회)

8526 Amanda Place, Vienna, VA 22180 (Tel. 703-573-3767)

Keynote Speaker

Rev. Dr. Jody Hice

Senior Fellow, Family Research Council

주최: (*) 워싱턴 한미 국가조찬기도회

www.koreausnpb.org / P.O. Box 1781, Annandale, VA 22003

* RSVP 하지 않으신 분들도 환영하며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 류응렬 목사 •회장: 정승욱 •이사장: 서옥자 •행사준비위원장: 윤필홍

┃ 자문위원: 백순, 정세권, 박주용, 변헤롤드, 박상근, 최정선 ┃ 감사: 손기성 목사 ┃ 서기: Jin Suk Poulsun ┃ 회계: 김진이 ┃ 실행위원: 김영선, 손윤희, 장미원, Abbott Koehler

□ 업천: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미국 국가조찬기도회,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메릴랜드한인교회협의회, 워싱턴지구 한인연합회, 메릴랜드한인회, 버지니아한인회

l 후원: 북미주 KCBMC 총연합회, 굿스푼 선교회, 워싱턴기도연합회, PRASSION, SEED International, 한미나라사랑기도운동연합회, 미주한인재단-워싱턴



Week ^{8 연예/문화} Sports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2025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대상작 조선왕

실 와인마개. 22 연지고

(프리미엄상) 3 한국

전통 글리팅(금상) 4

석굴암 조명(은상) 5

진묘수 디퓨저(동상) 🗗 갓

잔(특별상) ☑ 공모전 수상자들이 제

품을 들고 청와대 사랑채 앞에 섰다.

(왼쪽부터) '호호' 김현지 팀장, '화

협옹주'염지혜 사원, '스튜디오 점선

면' 양영모대표, '미미달' 한상미대

표, '고마스토리' 신미현 대표, '라

임코리아'양학모대표. 강정현기자

www.LBuniversal.com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①중앙일보 JoongAng Ilbo



임종범 대표 변호사(VA/MD) 703-333-2005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간호사(RN)

E2. R 비자

Dental Implant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하미 호텔츠)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직한 회사 입니다.

Kie D. Lee, DDS, MD

Washington/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11만원 굿즈, 요즘엔 없어서 못 산다 조선왕실 와인 마개, 갓잔, 석굴암 조명,

화협옹주 연지고, 궁궐 사계 글리팅, 백 제 진묘수 디퓨저…. 연일 품절 사태를 빚는 인기 기념품이자, '2025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수상한 영광의 얼굴이다.

2025년 현재 가장 역동적인 관광 콘텐 트는 이른바 '굿즈' '뮷즈(뮤지엄+굿즈)' 로 통하는 관광기념품이다. 지역 고유 상품부터 박물관 뮷즈까지, 기념품이 관 광 콘텐트로 폭넓게 소비되고 있다. 국 립중앙박물관의 반가사유상 미니어처 와 까치호랑이 배지, 경주박물관의 얼굴 무늬 수막새 굿즈, 리움미술관의 겸재 정 선 큐브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관광기념 품 공모전의 주요 수상작을 통해 K굿즈 트레드를 살펴봤다

박물관 굿즈 사러 날마다 오픈런

판매만으로 213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 렸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217억원어치 를 팔았다. 이미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 다. 뮷즈 열풍을 일으킨 주인공은 단연 국립중앙박물관이다. '케이팝 데몬 헌터 힘입어 날마다 오픈런이 이어진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뮷즈의 성지라면,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K관광기념품의 등용문이다. 1998년부터 27년간 한국 대표 관광기념 고 저렴한 소품이나 전통 공예품이 주를 품 2000여 점을 발굴했다.

'흑립 갓끈볼펜(2023년 문체부 장관상)'. 5억원 누적 매출을 달성한 '자개소반 무 비 트렌드가 올해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선 충전기(2021년 한국관광공사 사장 공모전에서도확인됐다. 상)', 폭발적인 인기에 중국산 모조품까 지 등장한 '단청 키캡 키보드(2024년 한 이젠 굿즈도 프리미엄하게

달라진 K굿즈 트렌드

4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지난해 뮷즈 지난해 박물관 굿즈 200억원 판매 과거엔 간단하고 저렴한 소품 인기 최근엔 석굴암 조명·백자 립밤 등 고가 제품 열풍, 연일 품절 사태

스(케데헌)'를 비롯해 K컬처의 인기에 국관광공사 사장상)' 등 성공 신화가 이 품절 사태를 일으키고 있다. MZ세대 사 어지고 있다.

기념품 시장의 트렌드도 달라졌다. 한 났다. 국관광공사 쇼핑숙박팀 유한순 팀장은 "과거에는 거울·자석·볼펜처럼 간단하 이뤘으나 요즘은 비싸더라도 소장 욕구 갓 소품 유행 속에 품절 대란을 낳은 를 자극해야 팔린다"고 말했다. 가치와 경험, 희소성을 높이 사는 프리미엄 소

올해 공모전 은상 수상작 '경주 석굴 암 조명(11만6000원)'을 보자. 석굴암 본존불과 원형 주실을 110분의 1로 축 소 재현한 조명인데, 은은한 조명이 본 존불을 후광처럼 비추는 것이 핵심이 다. 지난해 8월 국립박물관 온라인샵 '뮷즈(MUDS)'에서 판매된 이후 연일 이에선 '명상등' '무드등'으로 입소문이

Friday, October 3, 2025 C

제작사의 양영모(40) 대표는 "석굴암 전체를 정교하게 재현한 것이 특징"이라 며 "제품 하나 제작에 30시간이 걸린다" 고 말했다. 3D 프린터 10대로 시작해 현 재 100대까지 장비를 늘렸지만, 물량이 달릴 만큼 수요가 많단다.

대상(대통령상)에 오른 '조선왕실 와 인 마개(3만2000원)'도 주방용품이라고 가격이 높지만, 40~50대 여성의 구매가 하기엔 예술성과 완성도가 빼어나다. 와 인 마개 위에 곤룡포 문양의 금속 공예

를 올린 게 특징이다.

일명 '어좌 패키지'도 감탄을 부른다. 보관함을 열면 일월오봉도 병풍이 펼쳐 지고, 용상 형태 받침 위에 와인 마개가 놓인다.

경복궁 근정전을 손바닥 위에 옮겨 놓은 듯한 연출이다. 지난해 9월 포장을 바꾼 뒤로 매출이 5배나 뛰었단다. 제작사 한 상미(32) 대표는 "음주 문화가 없는 사 우디아라비아에서도 대량 주문이 들어 온다"고 귀띔했다.

1개에 10만원이 넘는 K뷰티 제품도 있 다. 프리미엄상을 받은 '화협옹주 연지 고(11만8000원·프리미엄상)'로, 화협옹 주(영조의 일곱째 딸) 묘에서 출토한 화 장품 성분(홍화·밀랍)을 활용해 제작한 립밤이다. 청화 백자를 용기로 사용해 꾸준하다.

백종현 기자













MD 301.770.4710

909 Rose Avenue, Suite 640 N. Bethesda, MD 20852

VA 703.354.1111

701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300 Annandale, VA 22003

한국인 전문 상담 Mrs. Lee 사무징 klee@roweplle.com





기차여행은 반값, 가을감성은두배

할인혜택 더 커진 '여행가는 가을'

'여행가는 가을'이 돌아왔다. '여행가는 가 을'은 201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벌이고 있는 여행 캠페 인이다

교통·숙박, 패키지여행, 입장권 등 다양 한 부문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봄가 을에 한 번씩 진행하는데, 봄에 하면 '여행 가는 봄'이다. 지난해에도 3월과 6월 두 번 캠페인을 벌였고, 1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아 전국을 누볐다. 여행 경비 지원, 철도 반값 할인 등 올가을에도 할인 혜택이 풍 성하다.

이젠 국내선 항공권도 2만원 저렴하게

여행은 결국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머 무는 일이다. 교통과 숙박이 가성비 여행 의 성패를 가른다. '여행가는 가을'도 여기 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교통 혜택. 지난해 까지는 철도에 한정해 할인 혜택을 줬지만, 올가을에는 항공편과 고속·시외버스 등으 로범위를 넓혔다.

탑승일 기준 10월 13일부터 11월 16일까 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달력에 표시해 두시라. 국내선 항공편은 운임을 2만원 할 인받을 수 있다. 해당 항공사는 대한항공・ 에어로K·에어부산·제주항공·진에어·티웨 이등6개다.

코레일은 '동해산타열차(강릉~분천)' '백두대간협곡열차(영주~분천~철암)' '남 도해양열차(서울~여수엑스포, 부산~목 포) '서해금빛열차(용산~익산)' '정선아리 랑열차(청량리~민둥산)' 등 인기 관광열차 승차권을 반값만 받는다. 철도 자유이용권 '내일로 패스(어른 7일권 11만원)'도 1만원 을깎아준다.

이번 캠페인에는 국내 여행 활성화와 내 수 회복을 위해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 부·해양수산부 등도 동참한다. 이를테면 농식품부는 철도 50% 할인, 전국 주요 농 촌 체험, 관광지 이용 혜택을 묶은 '농촌투 어패스'를 내놨다.

해수부는 전국 18개 어촌에서 '어촌 체 험 휴양마을 스탬프투어'를 진행한다. 문체 부 김대현 제2차관은 "정부와 지자체, 민간

이 동참하는 범국민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역 발돋움을 위해 국민 의 발걸음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라면축제, 술도가여행 ... 패키지도 알뜰

패키지여행 상품도 노려볼 만하다. 한국 관광공사가 '여행가는 가을'에 맞춰 19개 특별 기획 여행상품을 준비했다. 패키지여 행은 여정을 짜는 번거로움을 덜고 비용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를테면 경북 당일 여행 상품(7만7100 원)은 먹거리가 테마다. 이색 음식 축제로 뜨고 있는 '구미 라면 축제'를 체험해보고, 구미 송정동의 '교촌 1991 문화거리'와 교촌 치킨 1호점도 찾는다.

술테마의 '우리 얼(코올)을 찾아서, 경주 술도가 여행(9만9000원)' 상품도 있다. 경 주 지역의 양조장과 브루어리를 둘러보며 막걸리와 맥주를 시음하는 게 주요 프로그

1박2일 울진 바다 여행 상품에는 왕피천 해상케이블카와 망양정, 후포항 요트 선셋 투어, 성류굴 관광이 포함됐다. 횟집 즐비 한 후포항에 들르고, 홍게 요리도 맛보는데 1인 16만1000원에 불과하다.

기차로 떠나는 당일치기 여행 상품 '로컬 로가을 여행'은 '여행가는 가을'의 대표히 트 상품이다. 지난해에도 10대 1의 경쟁을 뚫고 2000명이 여행 경비를 지원받았다. 교 통·식사·체험비 등을 포함해 1인 3만9000 원의 참가비만 내면 된다.

10월 22일과 27일 이틀에 나누어 진행 하는데, 경북 안동, 충북 단양, 전남 보성, 강원도 춘천 등 상품별로 목적지가 다양 하다. 최대 4명까지 동반 신청이 가능하다. '여행가는 가을' 상품 예약. 여정에 관한 자 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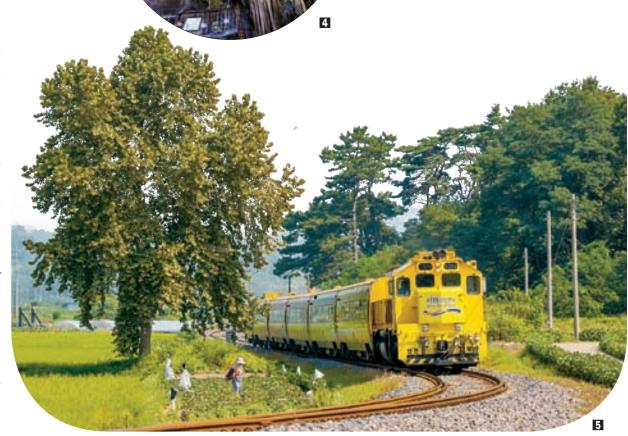
여행 캠페인 '여행가는 가을'이 시작됐다. ■ 경북 당 일 여행 상품의 여정에는 이색 음식 축제로 뜨고 있는 '구미 라면 축제'가 포함돼 있다. 2 해수부는 전국 18 개 어촌에서 '어촌 체험 휴양마을 스탬프투어'를 진행 한다. 3 울진 요트 투어 4 울진 성류굴 5 코레일은 인기 관광열차 승차권을 반값만 받는다. 사진은 용산 과 익산을 잇는 관광열차 '서해금빛열차'의 모습.

백종현·김경빈 기자.[사진 한국관광공사, 코레일]













Routine Eye Exam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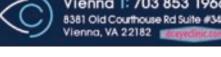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 안검하수(문제를 처참 개선)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정기적인 눈 검사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dceyeclinic@yahoo.com

Benjamin Chun, MD

Voted 2020 Best Eye Dr from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안구 건조중 치료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Dry Eyes Therapy

한국민로 제로 반으세요!!

김원근변호사 유언상속・이혼



- Probate·상속재산 정리절차·한국의 유산상속분쟁 트러스트·유언·위임장 Power of Appointment·취소 가능 트러스트·취소 불가능 트러스트
- 합의 이혼·재판 이혼·한국관련 국제이혼 재산분할·자녀 양육권·양육비 생활비 청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L McLean, VA 22102

8200 Greensboro Dr., #900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폭군의 셰프' 반한 세계인 그들 위한 한식 차려놨다

'K푸드' 열풍이 심상찮다. 농림축산식 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집계된 농식품 수출액은 67억1500만 달러(약9조4000억원)로, 지난해 같은 를 경신했다.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된 한국 드라마 '폭군의 셰프'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드라마 속 파전과 고추장 버터 비빔밥, 시금치 된 장국, 오골계 삼계탕 등이 인기를 끌 며, SNS에는 해외 이용자들이 직접 조리해보는 콘텐트가 잇따라 올라오 고있다.

2010년 한식재단으로 출발해 한식 레시피 교육, 홍보에 앞장서 온 한식진 흥원의 이규민 이사장은 최근 K푸드 열풍에 대해 "한식이 더 이상 특정 국 가의 전통음식에 머무르지 않고 전세 계적으로 미식 무대의 중심에 서고 있 다"고 평가했다.

-달라진 한식의 위상을 실감하나.

"최근 만난 지인이 말하길 예전엔 부모가 운영하는 한식당을 물려받지 않으려던 브라질 한인 2세들이 한식 당 운영을 자처한다고 한다.

한편에선 미식계의 올림픽으로 불 리는 '2025 월드 베스트 레스토랑 50' 이 올해 처음으로 북미권 레스토랑 순 위를 매겼는데, 여기서 미국 뉴욕의 한식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아토믹스 (Atomix)'가 1위로 선정됐다. 개인의 성과인 동시에 한식당이 글로벌 미식 의 정점에 다다랐다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격세지감이다."

-K푸드에 대한 관심의 계기는 무엇이 라보나.

"K팝, 드라마 등 K컬처의 확산으 로 한식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전파된 게 크다. 음식은 '네오 포비아(Neophobia·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가 강하게 작용하는 분야인데, 콘텐트가 심리석 상벽을 낮줘쉈다. 여기에 비선, 슬로우 에이징이 화두가 되면서 발효 식품·채소 중심의 한식이 주목받는 듯

이규민 한식진흥원 이사장

K드라마가 외국인 심리장벽 낮춰 발효식품·채소등건강식도한몫 기간 대비 5.1%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 글로벌 표준 레시피 보급에 힘써 현지 맞춤식 · 전통 계승 함께 가야

이규민 한식진흥원 이사장이 1일 인터뷰에서

-외국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한식은.

"우리 원이 지난해 실시한 조사 결

과, 해외 한식 취식 경험자의 최선

호 메뉴는 한국식 치킨(13.8%), 김치

(9.7%), 비빔밥(8.5%), 불고기(6%) 순

닭 튀김 요리는 세계 어디나 있지

만, 우리나라 치킨은 특유의 혼종성

(hybridity)이 집약된 결과물이다. 이

른바 '겉바속촉(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의 식감을 유지하기 위해 여

러 레시피를 더했고, 장류를 베이스로

한 양념들이 다채로움을 더하며 한국

한식 세계화는 지난 이명박 정부 이

후 본격화 됐지만 이에 대한 국내 여

돈이 긍정적으로 바뀐 건 얼마 되지

않았다. 한식 특유의 매운 맛이나 발

효 등의 조리 방식 역시 세계화의 걸

식 치킨이 완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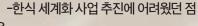
림돌로 꼽혔다.

김경록 기자

한식 열풍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었다.

대한항공, 농식품부 등 민관을 오가며 한식의 대중화에 힘썼던 이 이사 장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 정부는 글로벌 표준 레시 피 개발, 보급에 힘썼고 한식을 건강식으로 홍보해왔다"고 말했



"초기엔 내부에서도 논란이 컸다. 오리지널리티를 강조해야 한다는 의 견과 현지식 변형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 팽팽히 맞섰다. 사실 둘 다 중요하 다. 변형된 한식은 전통 음식으로의 유입 효과가 있고, 이렇게 넘어온 관 심을 이어가려면 오리지널리티도 탄 탄해야한다."

-향후 한식 세계화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미식브랜드'로서 한식의 이미지 를 정립해야 한다. 떡볶이, 김밥 등 일 상 음식 뿐 아니라 파인다이닝 분야 까지 한식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걸 보 여줘야 한다. 예를 들어 세계 미식국 가 10위 안에 드는 페루의 경우 '센트 럴(Central)'이라는 레스토랑이 월드 베스트 레스토랑에서 1 위를 하며 큰 관광자원 이 돼줬다. 이런 식당이 세계 곳곳에서 나와야

한다." 이 이사장은 마지막 으로 "돌아오는 명절엔 다양한 음식을 즐기며 한식 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몇 가지 음식을 소개 했다. "추석은 햇곡식, 제철 채소를 활 용한 한국 음식 문화가 집약된 명절이 다. 흔히 송편, 갈비찜 등을 떠올리는 데, 올 추석엔 충청·전라도 지역에서 즐겨닉는 노단국, 색감이 화려한 화양 적, 가족들이 함께 마시기 좋은 배숙 등도 즐겨보시길 권한다."



최민지 기자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











중고차 특선 세일

페이지 토요타에서 다양한 중고차를 만나보세요! [다량의 중고차 보유] "원하시는 예산과 스타일의 중고차를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찾아 드립니다!"



2019 Toyota Camry LE Sale Price \$21,500 Sale Price \$21,50 Mileage: 44,270 Mileage: 31,670 Stock#: 85304A



Stock#: P8583







Stock#: P8593



Mileage: 56,044

Stock#: P8535

8

Honda

2022 Toyota Tcoma SR5 4x2

ale Price \$32,014

Mileage: 33,756 Stock#: P8555

Mileage: 81,623





Mileage: 63,502 Stock#: 85302A

Uber | lyR

우버/리프트 운영자분 도와 드립니다! \$750 리베이트 (딜러에 문의 주세요!)

택스 아이디로도 낮은 이자율에 차량 구입 가능합니다.

높은 이자율로 고민하시거나 페이먼트 부담으로 차량 구입을 망설이시는 분들 빌페이지 토요타가 도와드립니다! "**빌페이지 토요타 스페셜 프로그램"** 자금 확인하세요!

"빌페이지 토요타 한인팀이 항상 여러분을 최고로 모십니다!'

한인세일즈 매니징팀

김 광수 301,401,8685

제네랄 매니저 쟈니 김 세일즈 매니저 숀 박 파이낸스 디렉터 쟌 조

Billpage • Arlington Blvd.

www.billpagetoyota.com

Bill Page TOYOTA

애난데일에서 10분거리!

703.532.8800 2923 Annandale Rd., Falls Church, VA 22042

Bill Page TOYOTA

Sales Hours M-F 9am ~ 9pm Sat 9am~ 8pm / Sun 11am ~ 6pm

구찌엔고궁도내주면서 …오기로 '길바닥패션쇼' 열었죠

지난 22일 저녁 6시, 서울 광화문 광장 은화려한 불빛에 휩싸였다. 길 가던 이 들은 발길을 멈췄고, 세종문화회관 층 계는 삼삼오오 자리를 잡고 앉은 이들 로 가득했다. 지춘희(71) 패션 디자이 너의 '미스지콜렉션' 2026년 봄·여름 패션쇼를 보기 위해서다. 50여 명의 모 델이 두 벌씩, 총 100여 벌을 선보인 자 리. 날씨는 이제 막 가을로 접어들고 있 지만, 눈앞에선 꽃보다 아름다운 각양 각색의 옷이 활짝 피어났다. 쇼가 열리 기 며칠 전 만난 지 디자이너는 이 엄 청난 광장 쇼를 준비하면서도 "길 가던 사람들이 '오늘 퇴근길엔 멋지게 차려 입은 여자들이 많네' 정도로 생각했으 면좋겠다"고했다.

1999년 드라마 '청춘의 덫'에 출연했 던 배우 심은하의 옷을 디자인하면서 '청담동 며느리 룩'을 유행시킨 지 디자 이너의 의상은 단아하면서도 여성스 러운 멋이 있는 게 특징이다. 이미숙·장 미희·고현정·이영애·전도연·장진영·송 윤아 등 당대 최고의 여배우들이 지 디 자이너의 옷을 입고 매번 화제를 모았 지만 디자인 자체는 요란하지 않다. 예 뻐 보이고 싶은 여성의 심리를 잘 캐치 해 아름다운 실루엣을 만들어내지만, 지금 당장 내가 입고 거리를 걸어도 일 상에 잘 스며들 만큼 자연스럽다. 이나 영·원빈의 결혼식에서 이나영이 입었 던 웨딩드레스는 화려함 대신 초록 풀 밭에 더 없이 잘 어울릴 만큼 청초했다.

'청담동 며느리 룩' 유행시킨 패션계 거장 -선생님 쇼에는 늘 다른 디자이너들 쇼에 선볼수없는드레스가등장합니다.

"옷이 기능적으로만 존재하는 건 아 니니까요. 예뻐 보이고 싶은 건 모든 여 성의 로망이죠. 유치하지 만 누구나 한 번쯤은 공주를 꿈꾸잖아요. 어릴 적에 는 보자기를 휘감아서 드레스를 만들 어 입고. 그런 느낌 때문에 쇼 때마다 드레스를 만들어요."

-광장에서 하는 패션쇼, 기획도 규모도 쉽진 않았겠어요.

"큰 길에서 한 번은 쇼를 해보고 싶 었어요. 행진까진 아니더라도 각양각 색의 옷을 입은 모델들이 지금 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섞여 지나가는 느낌, 그런 걸 표현하고 싶었 어요."

지 디자이너는 광장 쇼를 기획한 이 유를 말하면서 "내가 거리에라도 나서 야 힘든 패션 업계가 조금 활기를 띄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K팝·K 무비·K드라마·K뮤지컬·K문학 등등 다양한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 면서 팬덤을 형성하는 요즘. 훨씬 앞서



내가 거리에라도 나서야겠다 생각

좋은 원단은 몸 실루엣 잘 살려내 여행 다니며 자연의 컬러서 영감

늘새로운도전…요즘은 수영 배워 '어떤 옷 좋을까' 아이돌 공부도 열심 것 같아요. 옷도 너무 많으면 쓰레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던 K패션은 의 외로 힘을 못 받고 있다. 지 디자이너의 걱정도 같은데, 그는 특히 "정교한 옷 을 만들 수 있는 '손'이 점점 줄고 있는 게 가장 심각한 패션 산업의 구멍"이라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자랑처럼 이야 기하는 '한 땀 한 땀 만드는' 장인들이 줄 고 있다는 얘기죠.

말 없어요. 우리 공장도 가장 젊은 기 술자가 60세에요. 감독은 있는데 조 명이나 무대 만들 사람이 없는 셈이 죠. 막대한 자본이 '메이드 인 이탈 리아'를 홍보하지만 요즘 이탈리아 에서도 대부분 중국인 노동자들이 일해요. 현명한 소비가 필요한 때인 기처럼 정리 대상으로만 여겨지잖 아요. 유명 브랜드 로고만 보고 살 게 아니라 정말 내 취향에 어울리는, 귀하 고소중하게 만든 옷을 사서 오래 입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 패션 산업도

지 디자이너가 '길바닥 쇼'라도 해야 겠다고 생각한 건 외국 명품 브랜드들

귀한 옷을 만드는 이들을 제대로 대우 하겠죠."

에는 고궁도, 한강다리도 쇼 장소로 척

-60대 여배우부터 10대 아이돌 스타까 지, 선생님의 옷을 좋아하는 비결이 뭘까

"가급적 좋은 윈단을 쓰려고 노력해 요. 좋은 원단의 힘은 가리고 싶은 부 분과 드러내고 싶은 부분, 즉 옷을 입었 을 때 보이는 보디 실루엣을 섬세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데 있어요. 그 바 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여성이 갖 고있죠."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끝나면 뭘 제일 하고 싶나요(지 디자이너는 장광효 디자이 너와 함께 매년 꾸준히 패션쇼를 열고 있 는 현역 디자이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버는 이유는 여행이 하고 싶어서죠.(웃음) 늘 여행 떠날 준비를 해요. 밤마다 가 고 싶은 곳을 지도에 찍어두고 정보를 모아요. 어느 곳을 어떤 루트로 갈지, 숙소는 어디로 할지. 새로운 정보를 찾으면 계획을 수정하고. 그렇게 늘 정리해두니까 시간만 허락하면 언 제든훌쩍떠날수있어요."

"오늘 길에 멋쟁이 많네 정도 생각했

-여행의 매력은 뭘까요.

척내

주면서 국내

디자이너들

에게는야박

한 정부 정

책 때문이기

도 하다. 그는 "나라

도 나서서 먼저 길을

쓸어야 다음이 있을 것

-프랑스에선 패션위크

기간 동안 자국 브랜드에

궁이나 박물관을 쇼 장소로

"공무원들 생각하면 정말 답답해

요. 외국 명품 브랜드들이 쇼를 하면

전 세계에 K패션이 홍보될 거라며 허

가해주고, 국내 디자이너들의 요청은

까다로운 절차와 이런저런 이유를 붙

여서 거절하고. 2023년에 두이 비통이

잠수교에서 패션쇼를 했을 때는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에스팀 김소연 대표

랑 내가 몇 년 동안 기획한 게 잠수교

패션쇼였는데 결국 우린 관할 구청의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루이 비

통은 하더라고요.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방법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

이 달라져야겠죠."

오픈하죠.

아니겠냐"고했다.

"다른 날이 되니까요. 일요일 에 집에서 늦잠 자고 잠옷 바람 으로 종일 있어 봐요, 계속 지난

주의 피곤만 반복되죠.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기차를 타든 걷든 어디론가 떠 나면 그 날은 완전히 다른 날이 되죠. 여행이라고 꼭 며칠씩 가는 것만이 최 선은 아니에요. 평소와 다른 긴 하루 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팬데믹 기간 중한 번은 설날에 남아 메리카 깊은 산속에 있었다고 한다. 그 때 문득 '도대체 여행이 내게 주는 힘 이 뭐길래, 남들은 가족끼리 다 모이는 설날에 남의 나라에서 이러고 있는 걸 까' 자문한 적이 있는데 답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탐닉'이었다고

-어른으로서 젊은 친구들에게 인생의 조언을 한다면.

"살아보니까 사람은, 인생은 마음먹 은 대로 생각대로 만들어지더라고요. 뭘 하고 싶으면 그냥 해라, 불안을 안고 있는 게 인생이다, 그러니 뒤돌아보지 마라. 결국 꾸준함을 당할 것은 없다,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누구나 욕심이 있죠. 그러면 그 욕심 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하죠. 그것밖 에는 없어요. 오래 남는 자가 남는 거예

서정민 기자



집 팔려니 고민되시니요?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안 쓰시게 하여 제대로 팔아 드립니다. 집 수리 이쁘게 해서 빨리 팔아 드립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약속 드립니다.

셀러미 희소식 ~

이자가 6%대로 많이 내렸습니다. 이자가 더 내리면 집 값이 더 올라갑니다. 집사실 바이어들은 때를 잘 잡아야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투자용 주택을 장만해 노후 은퇴 자금으로 활용 하실 분들은 연락주세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 상담 해드립니다.

매릴랜드, 디씨 집 관리 힘드시죠. 임대면허증, 카운티 인스팩션, 래드 인스팩션 다 관리해드립니다. 세입자와의 분쟁 해결해드립니다. 임대주택관리 17년 경력의 노하우!

싱글 홈, 스프링필드 (애난데일 부근) 방3. 화2. 즉시 입주

\$3,600

아파트, 디씨 NW 하워드 대학부근 아파트 방1, 화1

\$1,600

급매 페어팩스에서 가장싼 타운하우스 방2, 화 1, 아담한 뒷마당 챈틸리 as ls 급매

\$300,000 (일대 \$1,800)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모바일 앱으로 손님 폰에 세일 광고 및 마케팅 문구 전송, 무제한,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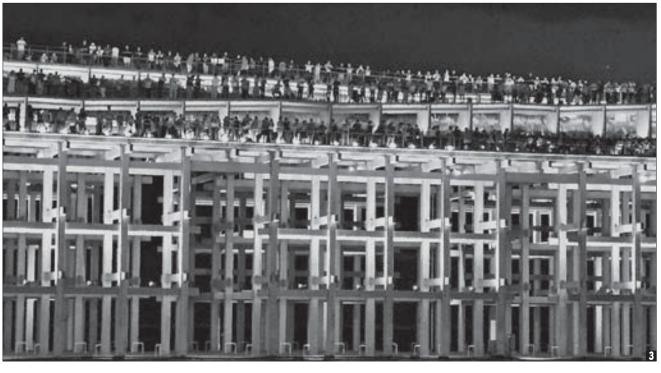




상담문의 환영 703-225-5500 WWW.WORLDBANKCARD.COM WWW.IMIDUS.APP









■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한국관 앞 풍경. 온종 일 긴 줄이 서 있다. 2 매일 저녁 두 차례씩 엑 스포 행사장 분수에서 펼쳐지는 멀티미디어 쇼. 3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최고의 명물 '그랜 드 링'. 못 하나 박지 않고 나무를 조립해 높이 20m 길이 2025m의 벽을 쌓았다. 4 고베의 다 케나카 목수박물관. 그랜드 링 건축에 참여한 다케나카 공무점의 박물관이다.

3시간줄선다…못하나안쓴 2025m '오사카에펠탑'

17일 남았다,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한국관 건 줄, 200만명 넘게 입장 아톰·건담전시관엑스포최고인기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가 6개월 됐다. 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다음달 13일 폐 막한다. 엑스포는 올림픽·월드컵과 함 께 세계 3대 이벤트로 꼽힌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열린 초대형 이벤트여서 국내

에서도 관심이 높았다. 마침 올 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이

일본정부관광국 (JNTO) 초청으로 지 난 10~13일 엑스포 현 장과 엑스포와 관련한 장소들을 돌아봤다. 현장 에서 놀란 건 두 가지다. 사람

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2~3시간씩 줄을 서는데도 별 탈이 없었다.

'오사카 에펠탑'엑스포 뒤에도 남기기로

하늘에서 보면 엑스포 행사장은 커 다란 동그라미다. 원 안에 일본을 제외 한 157개 참가국의 파빌리온이 설치됐 고, 원 바깥에 일본관·기업관 등이 배치

원을 그리는 경계가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의 최대 명물 '그랜드 링'이다. 그랜드 링은 국가관 구역을 에운 높이 20m 폭 30m의 목조 건축물로, 전체 길

> 이가 2025m다. 2025m는 2025 년을 상징한다. 그랜드 링 은 4월 세계 최대 목조 건축물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그랜드 링은 벽이 자 통로이자 설치작품 이다. 이 초대형 구조물

은 나무로만 이뤄졌다. 일본 의 전통 목조기술을 동원해 못 하나 쓰 지 않았다. 나무 조각을 끼우고 맞춰 길 고높은벽을쌓았다. 구멍 숭숭 뚫린 나 무 건축물의 상부는 산책로다. 매일 수 십만 명이 산책로를 돈다.

그랜드 링은 건축가 후지모토 소우 가 설계했고, 일본 건설회사들이 구 간을 나눠 건축했다. 그 중 하나가 도 쿄타워·도쿄돔 등을 지은 '다케나카(竹 中) 공무점'이다. 옛 한국은행 건물도 다케나카 공무점 작품이다.

5 일본관. 일본관은 에너지 순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6 일본 파소나 그 룹의 전시관. 아톰이 전시관 지붕에서 손가락으로 바다 건너 아와지시마를 가 리키고 있다. 아와지시마에 파소나 그룹이 운영하는 테마파크가 있다.

6

고베의 '다케나가 목수박물관'을 크 들러 그랜드 링을 끼우고 맞추고 세운 비법을 보고 왔다. "400년을 지켜온 전 통(가와사키 아츠코 관장)"이라는 자 부심이 대단했다. 일본의 목조 건축 기 에 지정됐다.

프랑스 랜드마크 에펠탑은 1889년 파리 엑스포를 기념하기 위해 1888년 세워졌다. 애초의 에펠탑은 시한부 건 물이었다. 20년 뒤에 해체할 예정이었 다. 오사카의 그랜드 링도 엑스포가 끝나면 허물 계획이었으나 최근 생각 을 바꿨다. 일부 구간은 남겨 시민공원 으로 활용할 작정이다.

아톰 손이 가리키는 곳엔 제작사 테마파

오사카·간사이 엑스포는 오사카 앞 바다의 인공섬 유메시마(夢州)에 열 린다. 행사장 규모는 축구장 217개 크 기인 15만5600m². 전시관이 모여 있는 술은 202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파빌리온 구역은 6만5700m²면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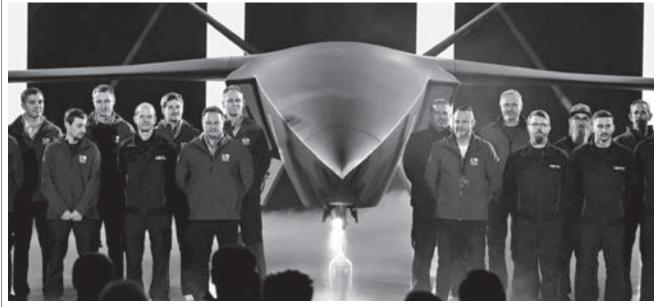
> 9월 20일 현재 누적 입장객은 2344 만3382명이다. 애초 목표인 2800만명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초반에는 흥행이 저조했으나 여름이 지나면서 입장객이 확 늘었다. 요시무라 사치코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홍보부장은 "9 월 들어 하루에 20만명씩 입장하고 있 다"고소개했다.

행사장 어디를 가나 긴 줄이 서 있 는데, 가장 줄이 긴 국가관 중 하나가 한국관이다. 한국관 박영환 관장은

"이달 초순 입장객 200만명을 돌파했 다"며 "두 시간은 기다려야 입장이 가 능하다"고 말했다.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는 않다. 한국관 한쪽 벽면을 통째로 덮은 높이 10m, 폭 27m의 스 크린에서 한국 홍보 영상이 상영되고 있어서다. 한국관 안에서는 AI 기술과 K문화가 접목한 체험형 전시가 진행

누가 뭐래도 최고 인기 전시관은 아 톰을 앞세운 '파소나 네이처버스'와 건 담이 버티고 선 '건담 넥스트 퓨처 파 빌리온'이다. 아톰이 손가락으로 가리 키는 곳이 아와지시마(淡路島)다. 이 섬에 파소나 그룹이 운영하는 테마파 크가 있다.

오사카·고베(일본)=글·사진 손민호 기자



독일 신형 스텔스 드론 공개 독일 AI 방산업체 헬싱이 25일 투센하우젠 사옥에서 신형 초음속 스텔스 드론 'CA-1 유로파'를 공개하고 있다. 길이 11m, 폭 10m, 최대 이륙중량 4t인 CA-1 유로파는 단일, 집단 전투가 가능하며 2027년 첫 시험비행, 2031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한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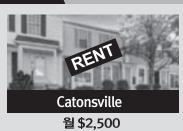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301-318-4242



타운홈



방5, 화5 **타운홈**

Pasadena

\$675,000

타운홈

싱글홈

방3, 화2.5



방3, 화2/2 **타운홈**

\$595,000



방3, 화2/1

Hanover

\$495,000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사고후유증
 ☑ 손, 발통증 및 저림
- ☑ 척추디스크통증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Blue Choice
- Anthem
- Aetna
- United Healthcare/GEHA CareFirst
- Innovation Health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ar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라빌 (301) 279-6960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라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That'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사고 날 만 하지

(Julie is talking to her husband Jeff one Saturday morning…)

(어느 토요일 아침에 줄리가 남편 제프와 이야기하며…)

Julie: Okay the kids are at my Mom's. Now we can clean the house in peace.

줄리: 자 아이들은 어머니 댁에 있지. 이제 조용히 집안 청소할 수 있겠네.

Jeff: Let's start cleaning the kids' room.

제프: 아이들 방부터 청소하자.

Julie: (Looking at a window) Oh the window is

줄리: (유리창을 보며) 아 유리창에 금이 갔네.

Jeff: The kids must have been playing with a ball in

제프: 아이들이 분명히 여기서 공놀이 했을 거야. Julie: Well we've got to fix it. That'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줄리: 그럼 고쳐야지. 사고 날 만도 하지.

Jeff: I'll get on it right away. 제프: 내가 바로 고칠게.

Julie: Do you have glass to replace the window?

줄리: 바꿀 유리는 있어요?

Jeff: I do in the garage, 제프: 거라지에 있어.

Julie: I'll clear away their toys and start vacuuming.

줄리: 난 아이들 장난감 치우고 청소할게.

Jeff: The window will be easy to replace.

제프:유리창 바꾸는 건 쉬울 거야.

기억할만한 표현

▶ (do something) in peace: 조용히 방해 안 받고.

"I just want to read my book in peace." (조용히 책 읽고 싶을 뿐이야.)

▶ (one) will get on it: (금방) 할 거야.

Jim:"I need that report by next Tuesday."(짐: 그 보

고서 다음주 화요일까지 필요해.)

Roger: "l' ll get on it." (라저: 금방 작성할게.) ▶ clear away (something): (무엇을) 치우다. (또는

clear something away)

낱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가로열쇠

(1)임금에게 올리던 글. 조선 시대 실학자들은 임금에게 ~을 올려 개혁안을 건의하였다 (3)갑 자기 세차게 쏟아지다가 곧 그치는 비. 황순원의 단편소설 ~는 시골 소년과 도시 소녀의 청순하 고 깨끗한 사랑을 소재로 한 순수 소설의 백미로 일컬어진다 (5)조금 어둑한 때. 사방은 어느새 저녁 ~이 깔려 오고 있었다 (7)군사 작전에 필요 한 인원과 물자를 관리, 보급, 지원하는 병과 (9) 아주 다행함. 이만하기 ~일세 (11)낮 열두 시 (12)하얀 종이의 낱장. ~도 맞들면 낫다 (13)어 떤 저작물을 인쇄하고 간행할 수 있는 권리 (15)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 곡해. 역사 ~ (16)서울과 부산을 잇는 철도 (17)자신 의 출신 학교를 먼저 졸업한 사람 (18)비가 오려 고 하거나 올 때, 비에 맞으면 안 되는 물건을 치 우거나 덮는 일 (20)커다란 주머니에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넣어 높이 뜰 수 있게 만든 물건 (22)한평생을 두고 늘 어렵게 맞이하는 손님. 사 위 (24)소금에 절인 통무에 끓인 소금물을 식혀 서 붓고 심심하게 담근다 (25)이것을 손가락으로 잡아당기면 총알이 나간다

세로열쇠

(1)마음에 둔 사람을 몹시 그리워하는 데서 생기 는 마음의 병 (2)다리가 8개 있는 연체동물. 위 급시에는 검은 먹물을 뿜고 도망간다. 나는 ~ 꿈 을 꾸는 ~/밤하늘을 날아가면 나는/오색찬란한 ~가 되는 거야(안예은) (3)무섭거나 징그러울 때 살갗에 좁쌀 같은 것이 돋죠 (4)기세가 대단히 높음. ㅁ염ㅁㅁ (6)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연예 인이나 운동선수. 장성. 별 (8) 국민이 국정에 직 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권리. 선거권, 피선 거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따위 (9)하늘과 땅 사이. 이 세상 (10)줄을 지어 앞으로 나아갈 때에 쓰는 반주용 음악 (13)공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14)철없어 보이는 어리석은 사람 (15)겉보기에 좋고 질도 좋은 물건 (16)경솔하 여 생각 없이 망령되게 행동함. □□망□ (19)농 사가 잘된 해 (21)돈이나 재물 따위를 쓰는 데에 몹시 인색한 사람 (22)흰 눈썹. 여럿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훌륭한 물건. 마씨(馬氏) 다섯 형제 중에서 눈썹 속에 흰 털이 난 마량(馬 良)이 가장 뛰어났다는 데서 유래하죠 (23)아주 할줄모르는솜씨

스도쿠

I₹	40	유		lo	ļĀ	웈		
ᆿ		₽	þ	山		유		
논	2		옾		lΥ	ŀ∠	昬	ļπ
	Ħ	兦		전	占	130 130		운
눈	잶		12		垦		굔	균
ᅜ		റ	lΥ	神		ᆼ	상	
売	구	다	퍗		扫		堾	品
		ᇟ		믈	₹	Ю		łΥ
		८	h	₹		괌	₩	상

	9	1	6		4			7
5	7		9	2		6		
				1		3		9
7	1	3		6				8
2		5				7	3	
4	8			7	1			
		4	5		7	9	2	
		7	1			8	4	
		6	4	9	2			3



어 넣어야 합니다.

자료제공=올드독 (www.gobook2.com)

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 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

ε	7	ı	S	6	7	9	S	8
S	Þ	8	9	3	ı	L	2	6
9	2	6	L	8	S	7	3	ı
7	9	S	L	L	ε	6	8	Þ
L	ε	L	6	Þ	8	S	9	2
8	6	Þ	S	9	2	3	ŀ	L
6	S	ε	8	ı	L	2	Þ	9
Þ	ı	9	3	2	6	8	L	S
L	8	2	Þ	S	9	I.	6	٤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위싱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2024년 7월 1일 부터 조정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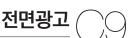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성명 (Name)	영문(Eng)	한글(Kor)		
주소 (Address)				
연락처	Home			
(Phone #)	Cell			
구독료 (Subscription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Bill Credit Card		
Fee)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 I 카드 번호	Master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	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옥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5 추석맞이

전라남도 우수 농수산 식품 장비외 판촉 행사는



10.2 (목)~10.6 (월)

5900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Tel: 703–543–7942**

엘리콧 롯데플라자 / 5일

10.9(목)~10.13(월)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Tel: 410-750-9656

애난데일 롯데플라자 / 5일

10.16(목)~10.20(월)

5204 Port Royal Rd., Springfield, VA 22151 Tel: 301–527–6980

게이더스버그 롯데플라자 / 5일

10.23(목)~10.27(월)

221 Muddy Branch Rd., Gaithersburg, MD 20878
Tel: 571-419-6954



Special Sale

보리굴비, 영광굴비, 서대, 감태김, 수제부각, 모시송편 등 전제품 신규입하

- 농식품: 모시송편, 국산 참기름. 들기름, 생들기름, 전통된장 및 고추장, 고추가루, 창평엿, 대봉감, 매실고추장, 엿기름, 들깨가루, 표고버섯, 8년 숙성 매실효소, 볶음 고추장(황태, 표고, 멸치), 고메 간장, 유자 간장, 매실 간장, 청국장, 낫토청국장, 메주가루, 엿기름, 유과, 유기농현미 동충하초, 유기농현미 상황버섯, 찹쌀약과, 감자떡, 누룽지(현미,보리, 귀리,오곡, 가마솥), 보성농협 잡곡(청자조, 흑미, 찰수수, 찰기장, 서리태, 율무, 할맥, 압맥, 찰흑미, 발아현미, 흑보리), 황칠추어탕, 매실고추장, 수제부각(김, 다시마, 카레, 스파이시), 건토란대, 건도라지, 건고구마순, 건무청시래기 등
- 건어물/수산: 영광법성포굴비, 보리굴비, 굴비고추장, 모시송편, 여수꼬막, 갈치포, 뱅어포, 학꽁치, 곱창김, 재래김, 청태김, 청각, 밥지어먹는 톳, 꼬시래기, 완도 미역 및 다시마, 매생이, 숙성홍어, 장족, 가문어살, 건홍합, 멸치, 양태채, 장어포, 선물용 반건시, 보쌈 다시마, 미역귀분말, 밥톳, 밥다시마, 감태, 감태김, 논우렁이, 가자미, 홍어무침, 갈치액젓, 멸치액젓, 건오징어, 염장곰피 등 다양한 수산식품
- **젓갈/반찬류:** 명란젓, 창란젓, 토하젓, 오징어젓, 조개젓, 참새우젓, 황석어젓, 갈치속젓, 전어고추, 가자미 식혜, 벤뎅이젓등과 양념깻잎, 무말랭이, 도라지무침, 명이나물, 더덕구이, 더덕무침, 생더덕무침,된장깻잎, 고추무침, 고들빼기, 갓김치, 쪽파김치, 율외주박장아찌, 멍게젓
- 약재류/건강식품: 도라지, 감초, 대추, 천궁, 작약, 결명자, 산수유, 개똥쑥, 느릅나무, 당귀, 어성초, 야관문, 헛개나무, 겨우살이, 황기, 구기자, 홍화씨, 구절초, 신선초, 삼백초, 맥문동, 유근피, 둥글레, 오미자 등



전라남도 우수 농수산식품

상설제문매장

JEOLLANAMDO PREMIUM FOOD MARKETPLACE

메릴랜드 엘리콧 롯데 9월 27일 (토)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SOFT OPENING

11월 1일 (토) Main Open 예정



상설 판매장 근무직원 모집 (516-551-5106)

주관 : $\overset{}{\sim}$ 전라남도, 핥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주최 : $\overset{}{Lotte}$ $\mathcal{O}_{\text{target}}$ 푸드코리아(주), Korepia Corp.







사업의 성공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① 위성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편한나라 척추신경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 이력서 보내실 곳: carefreeland@gmail.com

П

|파리 바게뜨 베데스타 🌷 Paris Baguette Bethesda 경험있는 **제빵사**,

케이크 데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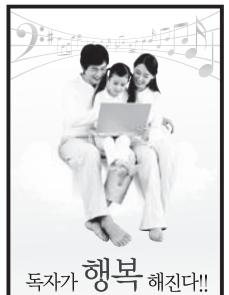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충족을 걸으땐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입니다"



Kmediarods.com

① 위성틴 중앙일보

WBS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대우 보장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703-225-5500 hr@worldbankcard.net

SD Mechanical 테크니션 직원 모집

대형 슈퍼마켓 냉장 · 냉동

서비스 & 설치 전문 회사

유경험자 또는 관심 있으신 분

서비스 지역 VA - MD - DC

703,447,4683

sdmechanical.office@gmail.com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Realty 企图

571-239-6054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마케팅 세일즈 직원 모집

- 영어/한국어 가능
- 출장 업무 필수
- 운전 경력 풍부하신 분
-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 분
-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301,468,8949

www.onnaturalusa.com

Korean BBQ & Hot Pot 게이더스버그, MD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f 규모 저렴한 렌트 매매가격 Only \$280,000

최근에 새로 지어서 리모델링 비용절감

240-988-6868

확실한 순익보장 델리

DC SW 매매가 32만불 (cash only)

- 연간 수익 15만불이상 (주매상 만불)
- ●수월한 운영 (키오스크 시스템)
- 저렴한 렌트비 (\$2700/월)
- ●오랜 경험의 믿을만한 직원 2명
- ●주 5일 (6am ~ 3pm)
- 공실위험 없는 건물

703,300,7207(SILLE) 관심있는 분만 연락주세요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Universal, Inc.

히팅·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 Chantilly, VA 지역
- ◎ 이중언어 필수
- ◎ 근무시간 조정 가능 (풀타임)
-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성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703-281-9660

구인 / 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이메일주시기 바랍니다.)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직원 모집 마케팅세일즈분야, 영어/한국어가능 출장업무필수, 운전경력 풍부하신분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분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문의: 301-468-8949

콜롬비아복지센터에서 함께일하실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 기사(옴니 거주 환영) 주방보조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에이젼트구함,사무실제공,유/무경 험자가능

▶703-598-3316, 703-862-5395

H-Mart 메릴랜드직원모집 모집부서:인사,자산,영업,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401K,유급병가/휴가,보험등 자격요권:합법적근무조건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 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젼트에 서함께일하실이중언어(영어또는스패니 쉬)가능한유,무경험자구합니다.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메릴랜드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셔 니스트와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스폰가능/월요일-금요일정규직 & 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

야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

com으로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코디네이터를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보조(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휴일과유급병가

▶443-828-7777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 지사약간명, 리셉셔니스트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세탁소/이미용/기타

영어가능한델리매니저구합니다. DCSW(월-금,6am-3pm) 703-300-7207 (문자)

19개월 남자 아기 돌봐주실분 구합니다. 입주가능 또는 출퇴근(풀& 파타임) 410-961-3012

파리바게뜨 베데스다에서 경험있는 제빵사 나케익데코분들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비숙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 운영. 널싱홈. 나이, 학력, 경력, 성 별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useb3.com 문의 이메일:admin@eb3recruit.com 전화: 571-546-8683

SD MECHANICAL 테크니션모집 대형슈퍼마켓 냉장냉동서비스와 설치전문 회사로 냉장냉동쪽에 경험 있으신분이나관 심있으신분지원부탁드립니다 서비스지역VA, MD, DC

메일: Sdmechanical.office@gmail.com

전화: 703-447-4683 엘리곳시티 세탁소 바느질 유경험자 구함 풀&파타임.

배깅만하실분도구합니다. 410-926-3200

파사데나지역비빔밥캐리아웃같이일 하실분구합니다. 남녀모두 환영 443-991-9331

엘리콧시티 혜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스시맨,스시보조(숙소제공가능)

▶443-420-3096

443-691-4130 (문자요망)

엘리컷시티 한국식당에서 주방장, 부주방 장, 캐쉬어를 모십니다.

싱글/타운방렌트

메릴랜드뉴그랜드마트근처싱글홈 2층욕실딸린큰방,주방,가구,인터넷완비 301-533-1438

메릴랜드 저먼타운 타운하우스 전체 렌트 방3,화3.5,10월1일부터입주가능 301-219-6030 (문자요망)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반지하전체 렌트 방2,부엌,욕실,세탁실,출입문별도,롯데에 서 15분 거리 443-797-7293

실버스프링 루트 200, 95, 495 근처, 싱글홈 방하나 렌트 합니다.

301-962-0728 / 240-997-3168

메릴랜드 그린벨트지역, 조용하고 교통편리 타운하운스 방하나 렌트, 즉시 입주 가능,

방세저렴 301-379-9660

495와 95번이 만나는 첫번째 EXIT, 메릴랜 드대학가까운싱글홈이층방렌트,즉시입

301-385-3535 (문자 요망)

메릴랜드실버스프링싱글홈 1층 전체 렌트, 방 2, 화장실 1, 주방, 세탁기, 건조기, 출입문 별도, 교통 편리, 즉시 입주 가능 301-646-3127

메릴랜드 한오버 이층방 & 베이스먼트 방렌 트합니다. 여자분 환영 410-917-1262

사업체 매매

확실한순익보장델리 매매 DCSW 매매가 32만불(cash only) 연간수익15만불이상(주매상만불) 수월한운영(키오스크시스템), 저렴한렌트 비, 오랜경험의 믿을 만한 직원, 공실 위험 없 는건물,주5일(6am-3pm) 꼭관심 있는 분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03-300-7207(문자)

Korean BBQ & Hot Pot 급매 \$280,000 메릴랜드게이더스버그, 최적의 위치, 140석이상, 3000 sqft, 저렴한 렌트비, 최근 새로 지은곳으로 리모 델링비 절감할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분 연락주세요.

240-988-6868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케어피플홈헬스(센터빌) Accounting / Bookkeeping (FT 유경험자)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 직원 모집 매니져/시니어 어카운턴트 회계사자격증소지자 문의:571-389-4415 이력서: hr@yicompany.com

간호사모집RN,LPN(풀타임,파트타임) 재택근무, 처우는 별도 협의

▶703-507-2492 (Mr. Bae)

ANNANDALE, VA 공인회계사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우대, 무 경험자도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있으며, 영주권스펀서 가능

Email: wjkim0111@gmail.com

BridgeOne Insurance 보험에이젼트구함 사무실제공,유/무경험자가능,VA&MD ▶703-598-3316, 703-862-5395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 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관련업무경험자우대하며,체 계적인교육과안정적인근무환경을제공합

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 대우보장 문의:703-225-5500

이메일지원: hr@worldbankcard.net 많은 지원 바랍니다.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어카운트보실분구함. 유경험자 우대 703-507-2020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실에서일한경력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jshin.esq@gmail.com

리셉셔니스트(이중언어필수)를모십니다 장소: Chantilly, VA 20151 시간:조정가능(풀타임) 급여:인터뷰후조정가능 전화문의: 703-622-7737 Email: accounting@lbuniversal.com

하이트론스(Hitrons) 버지니아 센터빌지점 Full time & Part time 세일 담당모집 가전제품 및 마사지체어, 매트리스 전문 매 장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급구합니다 ▶201-417-5350

애난데일위치,이민법사무실,I-140파일, 패러리걸(법률보조원) 구합니다. 이력서: Heajinjung@eb3recruit.com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가능, 컴퓨터사용가 능, 자격증소지자

러브핸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제공/경력자우대함 -지원및문의: HR 담당

▶703-657-0944 /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센터빌지역 덴탈랩 CAD/CAM, ZIRCONIA 원스텝 기술자 구합니다. 571-229-0387

홈케어(센터빌)업무팀직원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hr@firsthco.com ▶571-549-6789

김서규 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 자나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skim@skimcpa.com

보험회사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근무시간8시-5시(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구합니다.

-경력자우대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직원구함 풀타임/파트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우대

▶문의: 571-348-3723

Fairfax 풀/파타임이중언어 사무직유경험40k-50k베네핏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할곳: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홈케어 에이전시 구인 애난데일사무 및 리셉션 직원 구함 홈케어또는보험등유경험자우대 이력서: hr@firsthco.com 전화: 571-549-6789

센터빌,챈틀리지역물리치료병원에서 한국어/영어가능한Receiptionist구함 이력서: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ery-Level Welcome

▶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센터빌/챈틀리지역 임플란트전문치과풀/파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첨부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우대, Dentrix Plus Full/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식당/식품

영어가능한델리매니저구합니다. DCSW(월-금,6am-3pm) 703-300-7207 (문자)

Hashi Sushi 일식당에서 서버, 어시스턴트 매니져구합니다. 영어필수,경험자페이우대 703-628-9168 (문자)

파리바게뜨 베데스다에서 경험있는 제빵사 나케익 데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프레데릭스버그 일식당에서 일하실 히바찌 쉐프구합니다. 703-258-4356

에난데일일본라면가게에서 파타임홀직원 구함. 유/무 경험자 환영 703-338-3037

에난데일치맥에서 Server구합니다. 학생 환영

571-352-4938(문자) 또는 Chimc.va@gmail.com

엘리콧시티 혜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주방, 쿡(숙소제공가능)

▶443-420-3096

애난데일에 새로 오픈하는 분식점에서 주방 헬퍼해주실분,파타임카운터케쉬어구함 703-401-9997

Dumfries 컨비니언스토어RT 1 & 234 야간근무가능하신분(11PM - 7AM) 나이불문, 남자분 환영 703-291-7174/703-774-7443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이사 **▶**571-839-1647

H -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703-573-6300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lounge.com

진료 과목

•임플란트 •신경치료

•충치치료 •전체/부분 틀니

•응급환자

•교정 ●발치

•임플란트 틀니

•일반치과 •미용치과 •잇몸치료 •크라운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JJ Watch & Jewelry www.jjwatchusa.com

JJ Watch & Jewelry Shop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캐시어** 하시면서 기술 배우실 분 환영합니다.

페어옥스 몰 안에 있는



703.691.1993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게재중지를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2025년 10월 3일 금요일 중앙일보

롯데프라자 스털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인터내셔설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문자로연락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이미용

매나사스 파크 바버샵에서 함께 일하실 바버를모십니다 일주일에 3,4일 일하실분 703-473-9771

세탁/얼터레이션

알렉산드리아 테일러 샵에서 바느질 하실분 모십니다. 3일 파타임 가능하신 분 703-328-3064

비엔나지역세탁소에서파타임으로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카운터 캐시어, 유틸리티워커 (영어가능자)

7am-3:30pm(월, 화, 목, 금) 4pm-7:00pm(월-토) 유경험자우대,무경험자트레이닝 703-499-7050

세탁소 픽업스토어에서 카운터 보실분 경험자우대, DC 전철역옆 240-644-4190

자동차 /정비/바디샵

폴스쳐치 지역자동차정비소에서 메케닉 유경험자구합니다. 첫째/셋째 토요일 휴무 571-332-6110

엘리곳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기타구인

가사 도우실분을 찾습니다.

-음식 잘하시는분, 세탁, 집안정리

-맥클린(VA)지역

-주 5일 또는 파타임(시간당 25불) -하루6-7시간정도, 12시-7시, 12-8시 ▶703-887-1037

19개월 남자 아기 돌봐주실분 구합니다. 입주가능 또는 출퇴근(풀&파타임) 410-961-3012

No.1골프에서 Staff모집합니다(센터빌) **▶**571-591-4455

싱글/타운홈 렌트

GMU대학체육관뒤조용한싱글홈전체렌

트합니다.(웃슨하이스쿨학군) 방4,화2.5,차고2 703-350-2278

스프링 필드 싱글홈(애난데일 부근) 방3,화2,즉시입주가능\$3,600 ▶703-231-5572

우드브릿지 3 Levels Townhouse렌트 \$2,400, 방3, 화장실3.5, 업그레이된지붕, 창문, HVAC, 탁트인 넓은 부엌, 2 Master Suit Bedroom(윗층), 펜스 있는 뒷마당, 감 나무가 있는 앞마당, 교통편리, 밝은 타운하 우스,즉시입주가능 703-477-3114

페어팩스타운하우스\$3,000 로빈슨하이스쿨근처1.496saft 전체렌트 방3.화3.5.11/5일부터 입주가능 703-470-1736 / 703-470-7066

애난데일에서 5분거리 싱글홈 윗층(아랫층 과완전분리) 렌트합니다. 방3, 풀화장실, 리빙룸, 큰덱, 큰창고, 차고2 개, 넓은 뒷마당, 395/495/95 3분거리 703-508-5405 (Julia Jin)

애쉬번 타운하우스 렌트 \$3.300 전체마루, 차고2, 덱, 267/607 Briar Woods 하이스쿨 학군 **▶**571-239-6054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하우스 렌트 2100 sqft, 방4, 화3.5, 워크아웃 베이스먼 트\$3,200 470-485-1875

1. 페어팩스 타운홈 \$3,300 방3, 화2.5, 차고1, End Unit, 편리한로케이 션, 잘관리된집

2. 센터빌 타운홈 \$3,000 방3, 화2.5, 차고1, End Unit, 업그레이드많 이함,굿로케이션

3. 스프링필드 타운홈 \$3,000 방2, 화2.5, 2 assigned 주차, 밝고 환한집, 업그레이드 많이 함, 교통 편리

▶703-919-0472

애난데일중심가 1 에이커 싱글하우스 반지 하전체 렌트

방3,화2,키친,리빙룸,세탁기,입구별도, 주차넉넉, 최근 전부새로 수리하였으며, 전 화하면사진보여드림 703-395-4380

패어팩스 Costco뒤 타운하우스 렌트

\$3,900 방3/화3/차고2,최고학군, 29/50/66/286 최고로케이션 ▶571-239-6054

1. 센터빌 Fair Crest 타운홈 렌트 \$3,500 방3, 화3.5, 2car garage, 긴드라이브 웨이, 주차 다수, 콜린 파웰초, route 50/66/28/29

2. Lorton 타운홈 \$3,300 방3,화3.5,2car,전부마루,주차다수 SouthCounty하이,RT95/395/286/123 ▶571-239-6054

콘도 렌트

센터빌롯데 근처 콘도 전체 렌트합니다. 방2,화2.5,교통편리,즉시입주가능 \$2,180

301-466-1646

애난데일콘도\$1,500

703-477-3114

방1,화장실1,고급스런나무마루,탁트인 넓은콘도,업데이트된부엌,계단없는1층 나무가보이는 넓은 발코니,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알렉산드리아콘도\$2,100 방2,화장실1,1,105 SF 넓은 콘도, 13층으로탁트인조망,엘리베이터, \$100,000가량수리하고업데이트한모델 하우스 같은 콘도, 넓은 새 창문, 최고급스런 부엌, 넓은 리빙룸, 리모델한 화장실, 새 페인 트,즉시입주가능

매나사스콘도\$1,700 방1,화장실1,엔드유닛880sf,넓고밝은 콘도,세탁기,건조기,새화장실,나무마루 거실, 새 페인트, 넓은 발코니, 코스트코에서 1분거리,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애난데일 H 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화1,주차2,완전리모델링,모든가전 제품새것,즉시입주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헌돈 새 콘도렌트\$3,000 방2,화2.5,차고1,이노베이션메트로역도 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자이언트, 1,600sf, RT267/28, 최

▶571-239-6054

고교통요지

1. 옥톤싱글 \$3,600, 방 5, 화 2.5, 차고 2, 2.5acre 숲속,아름답고조용한 게이트있는집

2. 센터빌 stonegate, 콘도 렌트 \$2,100 방2,화2,2층1100sqft,securitygate

▶571-239-6054

방렌트

로튼(스프링필드)조용한주택가 1층 같은 워크아웃 베이스먼트전체 렌트 방 3개, 주방, 냉장고, 세탁기, 인터넷, 유틸 리티포함, 출입분별도, 2500 sqft 703-478-4523

스프링필드지역조용한싱글홈방렌트, 간단한취사,가구완비,인터넷,학생또는직 장인 여성 환영

571-286-2439

스프링필드(Backlick & Braddock이만나 는곳)조용한싱글홈베이스먼트방렌트 워크아웃, 간단취사가능, 교통편리, 주차넉 넉, 남자분환영 703-750-2795

GMU근처조용한동네싱글하우스욕실딸 린큰방하나렌트합니다. 남자분환영,즉시입주가능 240-271-1879 (문자요망)

애난데일 예촌앞 타운하우스 방 렌트합니다. 가구 완비, 취사 가능, 직장인, 학생 환영 703-622-2033

애난데일 타운하우스 밝고 조용한 윗층방 렌 트, 나무마루, 유포, 교통편리, 여성분환영 고양이 괜찮으신분만문의 바랍니다. 571-345-8879 (문자요망)

애난데일메시아장로교회뒤타운홈 2층방

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703-887-5173

애난데일에서 5분거리 싱글홈 윗층(아랫층 과완전분리) 렌트합니다.

방3, 풀화장실, 리빙룸, 큰덱, 큰창고, 차고2 개, 넓은 뒷마당, 395/495/95 3분거리 703-508-5405 (Julia Jin)

센터빌CVS근처깨끗한싱글홈2층방하나 렌트, 가구/취사/세탁/인터넷 완비, 여자분 환영,즉시입주가능 571-758-7117

페어팩스 방렌트 또는 하숙 하실분 구합니다 GMU, 노바에서 5분거리, 방/화장실/부엌/ 세탁기모두별도,편리한파킹 703-388-8518

페어팩스 웃슨 하이스쿨 건너편 타운 하우스 베이스먼트전체렌트 방1,키친,욕실,워크아웃 571-643-8008

애난데일 한강식당뒤싱글홈 방렌트, 주차 편리

703-395-4380/703-965-2343

애난데일 H 마트근처 싱글홈 1층 렌트 방1,화1,주방,여자분환영\$1,200 즉시입주가능 571-318-1119

애난데일 순복음 교회 앞 주택 지하 렌트 방2,화장실,큰거실,부엌,방하나쓰실분 또는 전체 쓰실분 703-244-3453

애난데일 싱글홈 반지하 방렌트 놓습니다. 출입문별도,취사가능,여자분환영 571-213-9080

센터빌롯데근처타운홈이층욕실딸린큰 방하나렌트합니다. 571-970-8048

센터빌CVS근처타운하우스마스터베드 룸/개인욕실/워크인클로젯/여성분환영 571-243-7027 (문자요망)

스프링필드(웨스트스프링필드하이스쿨근 처) 워크아웃 타운홈 베이스먼트전체 렌트 합니다.가구일체/유포

센터빌타운하우스베이스먼트세놓습니다 유포\$1,100

▶301-928-4125

703-887-8428

사무실/점포렌트

애난데일 오피스 전체 렌트 나무마루, Newer Windows, 계단없는 1층 위치,새로 단장한 화장실,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2,000즉시입주

▶703-477-3114

애난데일(자이언트근처)오피스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 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킨뒤 환한 오피스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3개,화1,오픈스페이스,파킹다수, RT29/66/28/286

▶571-239-6054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전체 4 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문자요)

부동산

부동산 매매

챈틸리급매타운하우스\$300,000 방2,화1,아담한뒷마당 ▶703-231-5572

센터빌벽돌타운하우스 \$589.000 방3,화2.5,차고1HMART근처 29/28/66 Braddock

▶571-239-6054

▶703-813-8949

우드브릿지타운홈\$410.000 방3,화31/2,잘관리된밝고환한집,펜스 가 있는 뒷마당, 3층 구조, 업그레이드된지 붕과창문,히팅&에어컨시스템

도미니언 밸리 컨트리 클럽, 헤이 마켓 럭셔 리싱글\$1,699,000 1에이커숲속, 6700 sqft, 방5, 화5.5, 3차 고, 야외 리조트 스타일,

선룸,고급조명,트레이천장,스파욕실,드 레스롬, 인로우스위트, 미디어룸, 게임룸, 바 포함, 최신 HVAC, 정수시스템 Wolf/Sub Zero 주방, 커스텀 벽난로, 하드 우드바닥

\$460K 업그레이드(야외주방, 벽난로, 연 못.분소,덱,음향시스템등)골프장,클럽하 우스, 수영장, 테니스, 산책로, 최고 학군

▶571-239-6054

1. 메릴랜드 베데스다싱글홈\$1,295,000 방4,화2.5

2. Gwynn Oak 메릴랜드싱글홈 \$419,000 방4,화3

▶301-318-4242

방4,화장실 4+1,차고1,새집,편리한교통, 모던하고 예쁜 집 2. 워싱턴 디씨 SE 타운 \$649,000

1. 워싱턴 디씨듀플렉스 \$950.000

방5,화장실 3+1,새타운하우스,모던하게 지은예쁜집

▶410-417-7080

1. 메릴랜드포토맥싱글홈\$1,075,000 방 4, 화장실 2+1, 차고 2 포토맥에 위치한 잘꾸며진집,좋은가격 2. Nottingham 타운홈 \$349,900

방 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새로고쳤으며, HOA가없는집 3. Elkridge 타운홈 \$625,000 방3,화장실2+2,차고2,아주넓고이쁜집,

마루바닥, 1층에 안방 4. 실버스프링 타운홈 \$750,000

방3,화장실 3+1,차고 2 13년된 벽돌로지어진고급 타운홈, 5. 엘리컷시티 싱글홈 \$820,000 방5,화장실 3+1,차고 2,밝고 이쁘게 잘꾸

며진집,넓은뒷뜰 **▶**410-417-7080

1. 패어팩스싱글홈\$999,000 방 5, 화장실 4+1, 차고 2, 넓은구조와 잘가 꾸어진집, 벽돌, 마루바닥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10월 3일 금요일

구인 / 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 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주시기 바랍니다.)

=015

2. 패어팩스 싱글홈 \$1,050,000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우슨 학군, 편리한 교통, 최근에 업데이트 3. 비엔나싱글홈 \$1,875,000 방 6, 화장실 6, 차고 2, 새집같이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집,편리한교통 4. 페어팩스타운홈\$850,000 방4,화장실3+1,차고2,앤드유닛,아주밝 고이쁘게잘꾸며진집

▶703-899-8999

1. 던로링 메트로 앞콘도 \$460,000 방1,화1,1/2층오픈 LOFT 835 sqft, 전부리모델링,나무 마루 2. 맥클린콘도 \$409,000 방2,화2,1,050 sqft Mclean High, RT495, 66/26/7

Metro, Tysons Gelleria옆 ▶571-239-6054

Alexandria 콘도 \$365,000 방2, 화2, Top Floor 엔드유닛, 업데이트되고 잘관리된콘도,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나무 마루, SS Apliance, Granite Countertops, Deck, 세탁기, 건조기 ▶703-813-8949

1. 센터빌싱글홈\$770,000 방3,화3.5,차고2,업그레이드부엌,마루, 넓은 뒷뜰 2.패어팩스싱글홈\$1,005,000

2. 패어팩스 싱글홈 \$1,005,000 방5,화3.5,차고2,최근에 전체적으로 업그 레이드한집,넓고고급스러운집

►703-899-8999

1. Ashburn 타운하우스 2012년 방3.5, 최고 학군, Dulles Airport RT267/50/28/607 2. Woodbridge 싱글하우스 \$639,000 방3, 화2.5 차고1, 좋은 동네, 좋은 학군, 전부 업그레이드, RT 1/95/234 3. South Riding 타운하우스 2014년

\$645,000, 방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571-239-6054

1. 패어팩스새 빌더홈 우슨 학군 싱글홈 \$1,900,000 2. 페어팩스씨티 타운하우스새 빌더홈

\$930,000 방3, 화장실3, 차고2 3. 챈틸리새빌더홈콘도(2025년 완공예정)

\$670,000 방3, 화장실2.5 4. 페어팩스중심가타운하우스(2025년 완 공예정) 방3, 화장실3

\$1,000,000 5. 챈틀리콘도새빌더홈(2025년완공예정)

\$530,000 방2, 화장실2 ▶703-231-5572

1. 알렉산드리아 단독주택 \$619,000

방3,화2 단층집으로 넓은 백야드 0.3 에이커 프랜코니아지역으로 교통, 생활시설 편리,시니어 거주하기에 편리한단 층구조,지붕,에어컨등 최근 교체,계단 없슴. 2. 매나서스콘도 \$ 330,000

방2,화2 주차공간 편리한콘도, 그로서리,병원,레스토랑,도서관등좋은생활 여견

▶703-483-0505

사업체 매매

확실한순익보장델리매매 DCSW매매가32만불(cashonly) 연간수익15만불이상(주매상만불) 수월한운영(키오스크시스템),저렴한렌트 비,오랜경험의믿을만한직원,공실위험없 는건물,주5일(6am-3pm) 703-300-7207(문자) 꼭 관심있는분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orean BBQ & Hot Pot 급매 \$280,000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 sqft, 저렴한렌트비, 최근 새로 지은곳으로 리모델 링비 절감 효과. 관심 있으신분 연락 주세요.

240-988-6868 델리샵(DC)\$150K

DC내위치, 장사잘되는곳이나은퇴예정, 안정된수입, 투자용 ▶703-625-9909

헤어, 네일&스파살롱사업체 매매 (레스톤/헌돈지역)

-\$100,000 - 현지 경험을 두루 갖춘 잘정비된 사업체로 수익 좋고 지속성장 가능 -월임대료&수도세 없음** -6개 헤어부스+2 페디큐어부스+2네일 테이블+1마사지룸+1왁싱룸 꼭관심있는분만연락 바랍니다. 571-315-3533 (영어 가능하신분)

중고매매/기타

비숙련 영주권프로그램 변호사가운영. 널싱홈. 나이, 학력, 경력, 성별 무관, 직계가족도 영주권혜택 웹사이트: useb3.com 문의 이메일: admin@eb3recruit.com 전화: 571-546-8683

상태좋은남/여중고골프세트싼가격에팝

703-966-9072 (Mr.Kim)

부동산학교(5주속성반)
2025년9월16일(화)개강
한국식쪽집게수업,온라인수업병행,기본 컴퓨터교육,합격후10주실전교육,자체제 작한글교재와문제풀이 수업료\$350(교재비\$100)
703-899-8999/410-417-7080

색소폰, 클라리넷, 호른, 트럼펫, 트럼본, 플루트-악기별개인 맞춤 레슨 757-338-8496

애난데일H마트근처텃밭공유하실분 1평, 2평, 3평 517-318-1119

무빙세일 (센터빌) 다이닝테이블,쇼케이스그림,유로피안장식 품,골동품,청동으로된인어공주,자수정수 집품,강아지케리어등등 808-223-4825

1년된 Inokim OX Scooter 공원에서 서너번만사용해상태좋음, 필요하 신분께저렴하게 드립니다. 703-945-2991

각종류의영어서류신청과등록 및접수와 해석하면서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써니 한)

전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구입등록/기타교통국업무 ▶571-294-0057 (Jim Dong)

ZOOM-ART-Pen & Water Color -누구나(성인,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수학개인과외합니다.(면대면 및 줌 강의) SAT & ACT준비(대학입시준비반) 및 영재수학-올림피아드(중, 고등학교준비반) 교육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202-320-0431

중/고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Email: inyeolchoi@hotmail.com

건축/페인트/마루

▶구인-리모델링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직원들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부엌, 화장실, 에디션, 덱, 팬스, 지 붕제너럴컨트랙터 MR. 박

JGL 건설회사 하청없이 25년 이상 숙련된본사전문인들이 직접시공합니다

►571-213-8678

703-434-2810

JJL CONTRATOR INC. 지붕고민/돈걱정그만하세요 ▶703-835-0945

▶703-835-0945

형제건축&지붕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믿고 모르다 그 하는 기가 하

▶703-928-6255

TOP건축콜롬비아MD - 집수리전문/각종집수리일체/지하실, 주방,욕실/전기설비,타일마루/루핑,카펫, 페인트/각종목수일일체 ►443-980-1167

JL 건축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레드문페인트 하우스페인팅(In,Out),덱메인터넌스와 클리 닝,샌딩,파워워시,핸디맨서비스

▶문의: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자체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건축페인트 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그외모든공사,주 정부라이센스보유,책임보험가입, 카톡아이디:wani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571-331-6811

보험

옴니화재사업체,자동차,집,의료,생명보험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원메디케어/메디케이드보험 ▶703-862-5395

조은혜종합보험 메디케어&오바마케어신청접수/자동차/주 택/사업체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융자

로리문맞춤형연금&재정관리 ▶703-895-7648

제인 최융자 25년 경력 매입/재융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융자 주택/상업융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 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히팅

SD MECHANICAL 테크니션 모집 대형슈퍼마켓 냉장냉동서비스와설치 전문 회사로 냉장냉동쪽에 경험 있으신분이나 관 심있으신분 지원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지역 VA, MD,DC Email:Sdmechanical.office@gmail.com

전화: 703-447-4683

KWK 냉난방 BALTIMORE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 프리저 수리 전문

443-540-6922 / 410-292-0001

L&B UNIVERSAL 히팅,에어컨가정용/산업용전문 제일큰규모의 냉난방회사,덕트클리닝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힛펌프,Carrier, Trane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가정용/상업용 ▶ 문의:703-380-2282

JD 냉난방(Mr.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TEACHER

아라냉동

▶410-370-8057

▶703-678-1749

에어컨,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케리아 웃장비수리,Ice Maker, 플러밍,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히팅,냉동,냉장,워킹쿨러,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Mr.Chung) 에어컨,히팅,냉동,냉장,전기,플러밍, 워킹쿨러,아이스머신,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센터빌, VA)
K24,K18,K14,K10,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 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 의서비스, 합리적 가격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 지사 오픈, AS 전단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

격,모든샘풀가지고방문 ▶703-600-9031

▶571-229-4633

토탈카펫

25년 전통과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 우드 / 타일, 주거용 /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 지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카펫

카펫 및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스 팀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풀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플러밍

화장실,키친리모델링,온수,히터디쉬워 셔,Disposals,상하수도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플러밍 수도꼭지,변기,하수도뚫음, 상하수도 수리교 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 안밖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이사짐(24/7) 빠른/책임/값이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Email: 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이사 전문, 비지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 /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 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해운 정확한선택, 확실한만족,귀국이삿짐 포장이 사,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귀국, 해외,타주,시내 이사,고품격 포장.자체창고보관서비스한국 화물 배송서비스

▶703-339-8844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어디든지가능 ICC 인가업체,100%자체보험확실한세관처 리 및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안전,신용,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포 장이사,타주,시내이사,자체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개스/히팅/에어콘/역류장치/ 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작 업(수해,화재,가구,곰팡이) 보험처리가능/용 접(철,스텐,알미늄)/제작및설치(키친후드, 당트)

301-222-3277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 그램세일즈 및 전기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시공과마감! 파인애플홈Mr.박 703-434-2810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의문제를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 손잡이 전문 703-340-5858 (VA) 443-980-5858 (MD)

▶▶미국회사Electric Co. 전기기술자, 영어소통필수 973-997-5805 (엘렌)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센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전기,카메라, DATA 24시간출장가능,

▶703-582-7757

유리

JK유리 &Window/상점,가정용유리,거울 Frameless샤워도어Aluminum,Door설치, MD/VA/DC지역

샤워도어,자동문,식탁유리,거울장식,

샤워노어, 사동문, 식탁유리, 거들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703-346-5962

임업/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들판잔디 깍기/울타리 라인/ 사채로 및 모추지 과리

산책로 및 목초지관리 ▶540-905-2849

HD Plus Construction 밀웍샵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페인트,스테인) - 카펜터(캐비넷,코리안카운터탑제작) - 프로젝 메니져(이중언어)

높은 페이와근무시간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2025년 10월 3일 금요일 **중앙일보**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1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C 플랜·약보험·치과·안경·OTC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내려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703-591-0009 / 703-537-9899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LENNOX Carrier 🎒 TRANE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이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셜이 최고의

Carrier , Lennox

전문딜러

AWARDED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페인트

Since 1988

- <mark>▶ 건축ㆍ시공 및 건물ㆍ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mark>
- <mark>▶상가 및 빌딩 신축ㆍ리모델링</mark>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mark>▶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mark> · 관리 대행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Repair Doctor

페인트,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Call 24시간 가능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 ₹ 목수, 타일, 마루, 덱, 캐비넷 샌딩 보수
- ♥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571.623.0255

Annandale

업 범망애운 귀국이삿짐/차량운송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무료겨전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Door to Door Service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ATLANTA)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귀국,해외 이사

타주,시내 이사

귀국,타주 차량운송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교려통운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자체보험으로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20년 전문//

- ▶귀국 이사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JL Contractor Inc. 야곱의 사닥다리 🐑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박을구

보 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 다이아몬드
- 백금(Platinum)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남양 진주 각종 보석 취급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 K14, K18, Setting 전문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 순금 아기돌 반지 팔지
-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플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융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중앙일보 2025년 10월 3일 금요일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Huundai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에어컨 / 히터 / 힛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

03.380.228

궁금한 기사 중앙 일보안에 있습니다 ①위싱틴 중앙일보

상업용

JGL Construction Inc.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Office: 571-213-8678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hvac.com

o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24 hours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EVERSHINE Construction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15년 이상의 경험 ●보험가입

703,994,2943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A-MD-D.C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영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상업용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드립니다. 지하실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플러맹

- ◆ 수도꼭지 교체
- ◆ 씽크 / 디스포져
- ◆ 워러히터 / 물새는것
-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 썹펌프 교체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개스/히팅/에어콘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닥트)
- 복구작업



301-222-3277

VA A 라이센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메릴랜드,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노스캐롤라이나 전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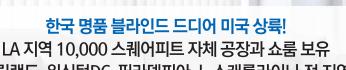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한국산 지브라쉐이드, 전동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회고급 공기정화, 항균 원단, 방염 기능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무료 방문} **703.600.9031**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카멕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멕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문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5년 현재 30년 이상 이상 판매 실적!!

SPECIAL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대표 김태원 703.352-8949





<u>역</u>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상담자 모든분께 책 증정 : International best sellers 브라이언 트레이쉬 & 사라류 박사 공저 Suceeding In Business In any market E-book 증정, 이메일/전화상담 환영 info@meridianwish.com

▶최신형 기계 교체

(WiFi · Wireless · Touch Screen 지원) ▶ 수수료 매달 \$50 ~ \$500 절약

► 세계 1위 회사 Worldpay + 30년 경력 Liberty Bankcard 전화주세요!

• www.worldpay.com

Info@meridianwish.com

프로모션으로 리버트 뱅크카드와

월드페이가

이루어

사장님의 꿈을

드리겠습니다.

WORLDPAY는 전세계 175 개국 2 M 고객서비스, 연간 550억건 거래 Liberty Bankcard (MPS) is a registered independent Sales Organization of Worldpay ISO and Ecommerce, LLC, a registered ISO of Fifth Third Bank, N.A., Cincinnati, OH, USA

'라이센스를 받으시고 고소득을 평생 올리세요' 학교 웹사이트 interpacU.com 에 들러서 한국어 Sample 강의를

들어보시고 법무시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대표 : 사라 류 박사

https://wikitia.com/wiki/Dr._Sarah_Sun_Liew 30년 프로세싱 경력,

88 - 구시 (전자상거래 & 금융), 영업학, 교육학, 설교학 박사

하버드 경영·교육·정치 대학원

Alumni MIT. Wharton.

하버드, 아브라함(J.D.),

퍼시픽(J.S.D.) 법대원 수학

부사장 : 아브라함 이

Chicago Booth

(경영학 학사, 석사)

경영대한워 수한

경영학 박사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미주 중앙일보는 한인사회의 뉴스와 목소리를 주류사회와 한인 2~3세들에게 전달하고자 영어뉴스 사이트

(Koreadailyus.com)를 **출범**시켰습니다.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Dealer No 90-491972, Permit 007669 청정지역 West Virginia에서

직접 캐오는 Wild Ginseng 입니다. **하연산삼의 효력 l** 면연력 <u>항암효</u>과

· 5~20년 \$600 · 20~30년 \$1,000 · 30~50년 \$1,500

문의 (571)236-8591



(213)800-3662 (213)407-4524

치질 - 치루 수술 안하고 0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풀림-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뼛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Leisure World Seal Beach, CA

주택 구매자 조건

-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경우 한분만도 가능)
-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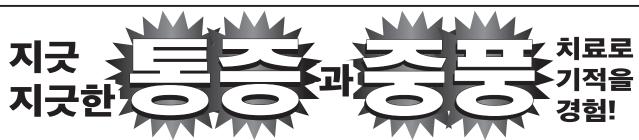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성민 산삼 한방 병원 서영수 한의학 박사와 중풍 증상이 크게 호전된 델휘노 고메즈 씨.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휘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지료들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시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작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 /**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力병이 아니다!



Tel. 213.385.3304 Cell. 213.503



1249 Blalock Rd #201.Houston, TX 77055

(832)605-4890 - (281)501-2623

2025학년도 가을학기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9월22일~12월5일까지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439S.WesternAve.#100LosAngeles,CA90020 | TEL:213-272-6031



소 갈비/소불고기

돼지 갈비/돼지 불고기

CINADUS-KOREAN BEEF KALIWAREF BELGOKE FORK KALIWFORK BULGOKE

샘표

진간장 진 S

한상 인절미

(ANY FLAVOR)

아씨 표고버섯

WHOLE/SLICED

DRIED SHITAKE MUSUBOOM

가도야 참기름

CAN (2 CAN 한정)

오뚜기

옛날 당면 300G

OTG KOREAN VERMICELLI

백설

코다 모찌꼬

KODA MOCHIKO

SWIRICE FLOUR

참치액(순/진)

BEKSUL TUNA SAUCE MILD / RICH

삼립 롤케익

SAMPLEP BOLL CAKE

바닐라/불루베리 실키

농심

김치라면 멀티

NONGSHIM KIMCHI RAMEN MILTI PK